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화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에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tents

01 유네스코 평화누리 소개 _ 7

02 2018년도 유네스코 평화누리 동아리 _ 11

03 동아리별 활동보고서 _ 15

- 가치걷기 _ 16
-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 _ 23
- 네꿈내꿈 _ 34
- 동국대학교 KUSA _ 42
- 목사발 _ 51
- 뿌리와 새싹 온새미로 _ 63
- 새꿈달꿈 _ 70
- 숙명여자대학교 KUSA _ 77
- 아우팅 _ 84
- 아울 _ 90
- 엘 네피제 _ 95
- 한양대학교(에리카) KUSA _ 102
- Eye Angle _ 106
- IDEA _ 112
- KISS _ 120
- SNU Economic Review _ 128
- UNAI ASPIRE 고려대학교 _ 134
- YesAllGirls _ 141





유네스코 평화누리 소개

●● 유네스코 평화누리 소개

‘유네스코 평화누리 사업’은 2013년 ‘유네스코 볼он티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를 주제로, 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변화의 주체(agents of social innov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평화누리 사업을 통해 전국 대학(원)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5-20명)를 선발하여 소정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 유네스코 본부·한국위원회 관련 정보 및 공지 안내, 워크숍 및 활동보고회 개최, 각종 네트워크 활용 지원, 프로젝트 현장 지원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활동 분야의 전문가나 대학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전체 인원 중 대표 및 부대표를 포함한 80%가 대학생이라면 기존·신설·연합·프로젝트 성 팀 모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매년 3월 초~4월 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 공지사항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발 기준은 △ 적합성: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 독창성: 프로젝트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 실천가능성: 내용, 인력 상 계획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은가 △ 파급효과: 프로젝트가 대학 및 지역사회, 우리 사회 인식 및 제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입니다. 평화누리 활동을 충실하게 완료한 팀원들에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18. 3. 28(수) 까지

“You are the generation of today.”
 청년 여러분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2018년 2월) 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목표 달성에 노력할 평화누리 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에 전국 대학생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유네스코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들을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창의력을 이용해 변화를 만드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활동과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합니다. 많은 대학(원)생·청년들이 유네스코 평화누리 사업을 포함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청년 활동에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이념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유네스코 평화누리 동아리

2018년도 참가자

전국 18개팀 216명의 대학생

#	동아리명	지속가능발전목표 활동주제	프로젝트명	인원
1	가치걷기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탈북 대학생과 함께하는 DMZ 평화 통일 여행	6
2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 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We can SDGs	12
3	네꿈내꿈	양질의 교육 성 평등	아쇼카, 내일은 학교에 가자	15
4	동국대학교 KUSA	건강과 웰빙	우울증 맞서기	17
5	목사발(목목히 사고하고 발전하자)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 우이사이	12
6	뿌리와 새싹 온새미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뿌리와 새싹의 작은 움직임	5
7	새꿈달꿈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새로운 꿈 달콤한 꿈	15

#	동아리명	지속가능발전목표 활동주제	프로젝트명	인원
8	숙명여자대학교 KUSA	건강과 웰빙 성 평등 육상 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淑明, 맑음	14
9	세상밖으로 아우팅	빈곤퇴치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아우팅	18
10	아울	양질의 교육 불평등 감소	아울이 아우르다	6
11	엘 네피제	성 평등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중등 분석” 세미나·연구	5
12	한양대학교 ERICA KUSA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환경사랑 쿠사	10
13	Eye Angle	양질의 교육 성 평등 불평등 감소	스튜디오 119	12
14	IDEA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육상 생태계 보호	SDGs 인터넷 강의 만들기	17
15	KISS	깨끗한 물과 위생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SWP (Solve Water Problem)	5
16	SNU Economic Review	성 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이코노믹 리뷰 13호 매거진 with 유네스코 평화누리	21
17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해양 생태계 보존	공다방 (공정무역 X 환경 캠페인)	17
18	YesAllGirls	양질의 교육 성 평등	Education Gets Girls Started	9



동아리별 활동보고서

- 가치걷기
-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
- 네꿈내꿈
- 동국대학교 KUSA
- 목사발
- 뿌리와 새싹 온새미로
- 새꿈달꿈
- 숙명여자대학교 KUSA
- 아우팅
- 아울
- 엘 네피제
- 한양대학교 (에리카) KUSA
- Eye Angle
- IDEA
- KISS
- SNU Economic Review
- UNAI ASPIRE 고려대학교
- YesAllGirls

가치걷기



동아리(팀)명	가치걷기			
프로젝트 명	탈북 대학생과 함께하는 DMZ 평화 통일 여행			
소속학교	서울여대, 서강대, 가톨릭대, 한남대, 한국성서대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이하은	서울여대	기독교학, 사회복지학	대표
2	김예은	서울여대	기독교학, 국제학	부대표
3	전성민	서강대	경제학	팀원
4	하태일	가톨릭대	행정학	팀원
5	김진욱	한남대	영어영문학, 사회복지학	팀원
6	이예인	한국성서대	성서학	팀원
자문위원	유숙영	서울여대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팀으로 선정된 ‘가치걷기’는 여행과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결성된 팀입니다. 가치걷기는 남북 대학생이 연합하여 ‘같이’ 걷는 것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치걷기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DMZ 평화 통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화통일여행은 2018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으며, 가치걷기가 평화통일여행 중 방문한 곳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였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에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평화통일여행이 민족의 아픔이 담긴 특수지역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인지, 참가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 속에서 침묵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남북 출신의 열 명의 청년들은 안타까운 분단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며 슬퍼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남과 북이 더이상 갈등이 아닌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북한 출신 청년		한국 출신 청년	
남	여	남	여
3	2	2	3
5		5	

[평화통일여행 참가자 인원 통계표]

사전에 가치걷기 팀원들이 평화통일여행을 기획하며 활동의 목표로 삼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바로 인지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열 명만의 통일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야기의 나눔과 확산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평화통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가치걷기는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가치걷기는 크라우드 펀딩 전문 업체 중 ‘같이가치 with kakao’를 선정하여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는 카카오와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걷기의 프로젝트 확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치걷기는 평화통일여행의 목적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리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문 심사 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¹⁾.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치걷기는 공익 프로젝트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같이가치 모금함을 공식으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은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2,232명의 시민들이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며 직·간접적 후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모금 목표액의 100%(700,000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였기에 뿌듯했습니다.

모금 달성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한 가치걷기는 평화통일여행에 함께할 북한 출신의 청년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입니다. 가치걷기 주최 멤버 하태일은 자신이 평소 활동하였던 가톨릭대학교 탈북 대학생 동아리와 서울지역 8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임원진에게 가치걷기의 평화통일여행을 소개하며 동아리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통하여 북한 출신의 평화통일여행 참가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SNS의 활용입니다. 저희는 SNS를 활용하여 평화통일여행을 홍보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SNS를 활용함으로써 평화통일여행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1) 프로젝트 모금금 제한 이후에는 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게된다. 모금 검토 기관은 모금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콘텐츠 내용이 부실할 경우 내용 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 가치걷기의 프로젝트 모금금의 경우에는 ‘비영리 공익 모금’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단법인 시민’에서 모금 검토를 받을 수 있었다. 모금금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공익성-프로젝트팀의 신뢰성-프로젝트팀 사업수행능력-프로젝트모금 콘텐츠의 구체성

받는다. 둘째, 평화통일여행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평화통일여행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가치걷기는 프로젝트의 SNS 홍보를 위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통계 자료 등 통일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과학청년팀, 홍보팀)측에 발송함으로 카드뉴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치걷기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카드뉴스의 내용을 재차 점검하고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카드뉴스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치걷기는 평화통일여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100%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NS 카드뉴스를 통하여 의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중인 한 연구원과 이메일로 컨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구원은 본인을 ‘DMZ 평화관광’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연구원은 가치걷기의 평화통일여행에 대해 알고 싶으며 팀원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평화통일의 긍정적 관심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동일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분과의 만남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지금, 드디어 열 명의 남북 대학생들이 평화통일여행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평화통일여행은 파주, 철원, 양구 DMZ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을 통해 남북 대학생은 함께 걸으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설렘을 경험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와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북한 이탈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출신의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한국과 북한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을 한다면 뿌리가 같은 민족이기에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정책제안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분단 현실을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DMZ 일대를 견학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각 교육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교육청은 연초 「학교통일교육 운영 계획 안내」 진행 시 분단 현장 체험학습을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또한 가치걷기의 제안을 통일교육계획 수립시 긍정적으로 검토하

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평화통일 관련 굿즈 제작 및 판매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의 공간이자 생태보고인 DMZ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과 꽃을 형상화하여 굿즈(노트, 파우치, 스티커)를 제작하였습니다.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전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굿즈가 현재 판매되고 있으며(2018.9.21.- 2018.11.1), 굿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익금은 국제 NGO인 ‘월드비전’ 대북지원 사업에 전액 기부됩니다. 이외에도 학보사 및 연천, 철원 등의 지역신문에 저희의 활동을 제보하여 저희의 활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활동사진



▲ 전쟁기념관에서 '북한말따라잡기' 게임을 하고 있는 가치권기 참가자들



▲ 제4땅굴 앞에서



▲ 을지전망대 앞에서



▲ 십자트래킹 코스에서



▲ 승리전망대 앞에서



▲ 임진각 앞에서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



동아리(팀)명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			
프로젝트 명	We can SDGs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가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대표
2	박승아	경기대학교	법학과	부대표
3	김현지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팀원
4	강지영	경기대학교	법학과	팀원
5	권희성	경기대학교	응용정보통계학과	팀원
6	성지혜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팀원
7	방선진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팀원
8	백설하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팀원
9	안지훈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팀원
10	유윤식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	팀원
11	윤영지	경기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팀원
12	김규린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팀원
자문위원	남정휴	경기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1. SDGs 세미나 진행(화요세미나 및 수요스터디)

- 3/27, 28 : SDGs - SDGs에 대해 배우고 토론과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의 목표였던 MDGs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한 것이 SDGs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DGs의 단점으로 개발도상국에만 지원을 해서 선진국이 소외된다는 점, 현재의 환경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SDGs의 목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DGs가 현재 관심있어 했던 이슈나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몇번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과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이슈가 된 것은 13번 목표 (CLIMATE ACTION)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고, 올림픽이 개최 후 진행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올림픽이 개최되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있어 평소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썸은 1번 목표(NO POVERTY)와 2번 목표(ZERO HUNGER)가 관련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전에 몰랐던 UN이 채택한 목표 SDGs를 배우

- 고, 토의를 통해 관심 이슈들이 SDGs와 관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SDGs의 17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게으름뱅이의 안내서’를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4/3, 4 : SDGs 13, 14 -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발생요인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번 토론 주제는 '여러분들은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였습니다. 환경을 위한 노력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측면, 국가적 측면으로 실천해야 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거리 걸어다니기, 식물을 키우거나 나무 심는 봉사 참여하기, 사용하는 물품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위한 수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책을 시행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서 효과가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뉴스를 봤는데,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4/10, 11 : SDGs 7 -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정의, 종류, 특성과 중요성을 설명하였는데, 먼저 에너지의 종류로 무한한 에너지(친환경 에너지)와 유한한 에너지로 분류해, 2025년 정도가 되면 유한한 에너지(석유, 석탄)들이 거의 다 고갈된다고 합니다. 가상으로 2025년에 블랙아웃(대규모의 정전 사태)이 진행된 상황을 영상으로 간접체험 하였는데,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에도 현대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 5/1 화요세미나 : SDGs 4, 5 - MDGs 교육관련 목표는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수 증가와 교육받지 않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수의 대폭 감소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목표는 아이들이 계산이나 글 읽기와 같은 기초적인 학습만 배울 수 있고 그 이상의 교육은 받기 힘들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목표가 바로 4번 목표, 양질의 교육입니다. 질적으로도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여러가지 이유 즉, 전쟁, 내전,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성

평등은 앞서 배웠던 양질의 교육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성 불평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엠마 왓슨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정들을 보면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주제는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토의하기" 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학습을 위해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의 수업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다른 교육을 일정한 틀을 갖고 교육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초중고 학생들 뿐만아니라 대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은 미래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도 성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들을 보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분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5/2 수요스터디 : SDGs 16 - SDGs 16번 관련,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이 정말 가능한가? 그 근거는?"이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진쌤과 호준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시절을 해외에서 보낸 만큼 그 윗세·대에 비해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북한보다 자유로운 문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서현쌤과 지혜쌤, 규린쌤은 "지난 시절까지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엄격했으니 회담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보여주기식의 회담인가" 등 비판적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영신쌤은 "문화적 교류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문점 선언을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준비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개선', '통일 자체에 대한 인식개선' 이었습니다. 인식 제고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동적인 활동은 대학생 역시 기여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
- 5/8 화요일세미나 : 답사 미리보기 SDGs 11 - 창덕궁, 창경궁, 운현궁 답사 사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효정쌤이 창경궁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동

물원과 식물원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것 또한 역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하기보다 나중에 답사를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한번씩 생각해달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5/15 화요세미나 : 답사 연합세미나 - 이번 세미나는 경기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 학우분들과 모여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번주 토요일에 탐방했던 창덕궁과 인사동 거리에서 퀴즈풀기, 설명 듣기 등 어떤 활동을 했는지 후기를 공유하고 이곳에 방문해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고 아름답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그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유형 문화재 중 어떤 문화제가 등록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모였던 만큼 토론의 내용도 다양했고 재밌게 진행되었으며, 염전, 서대문 형무소, 대동여지도 등등 많은 문화재가 예시로 나왔습니다. 각자 문화재 등록 기준을 기반으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보여주셔서 공감할 수 있었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많은 문화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5/16 수요일스터디 : SDGs 16 ‘독도영유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진쌤은 “독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일본에게나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현대통령님께서 독도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주시기 바라며, 독도 관련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호준쌤은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 실효적 지배를 정리해야하며 독도여행을 활성화 해야한다” 예빈쌤은 “일본 갔을 때 문구점에서 지도를 봤을 때 일본해라고 되어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껴야한다. 독도캐릭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성주쌤은 “세계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개선인식,사이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 한진쌤과 나현쌤은 “독도를 관광지로 활성화하는것이 중요하며 계속 보면 익숙해서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듯이 홍보를 잘 해야 한다” 규린쌤은 “우익제품을 거르기, •도서관마다 독도에 관한 고문헌을 전시해서 알리기, 외국인을 위한 독도 도서관을 건

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의 의견도 들어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도 나눌 수 있었으며 독도에 대해 더 알게 되고 해결방안도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5/23 연합세미나 : SDGs 16 - 오늘은 수원대와 함께 연합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SDGs 16번 목표인 평화 정의 제도구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한반도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다 같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의내용은 분쟁지역에 각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대국의 개입을 막는 것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것등이 나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그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희생과 책임을 진다면 평화를 위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5/29 종강총회 : 집단토론 - 마지막 세미나는 군도탈출이라는 집단토론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분석력, 논리력, 설득력 등이 향상되고 발전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게임은 문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설득하는 상황을 갖는데, 각자의 성적 발표 후 평가기준을 공유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칭찬해 볼 수 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입장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양면성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교훈이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이해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간을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방학 중 부정기적 스터디 및 회의 : 방학 중 다음 학기의 활동 계획 수립 및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부정기적인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중의 다양한 교재를 이용하여 SDGs와 국제이슈, 국제기구 등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 에서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한 SDGs에 대해서 2017년 최근까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2. 한국의 문화유산 답사 : 조선후기 역사의 현장~운현궁-인사동-창덕궁 (세계유산)

-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 답사 활동으로, 인사동에서 창덕궁까지 조선후기의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는 “세계문화유산답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동을 방문하여, 도심 속에서 오래 되었지만 귀중한 전통과 교류하는 소중한 공간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창덕궁에서 우리궁궐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신 ‘박성옥’ 해설가님께 약 1시간 가량 창덕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 관한 팀별 퀴즈와, 사진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날씨였지만 모두 함께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였습니다.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원 뿐 아니라 KUSA 한양대 에리카 지회, UNAI ASPIRE 한성대지부 학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 2018-1 평화캠페인 : 5월 15~17일

- 축제기간 동안 경기대학교 5강의동 앞 20번 부스에서 ‘유엔청년연합회’의 2018년 상반기 평화캠페인이 있었습니다.”We can SDGs”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경기대 학우분들께서 찾아주시면서 SDGs와 자세한 내용, 특징 등을 알려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또한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학우분들께는 유엔청년연합회에서 제작한 SDGs 스티커와 볼펜을 나누어드리며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그만 사탕 등 유청연 만의 상품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세 상품이 동이 날 정도로 학우분들의 열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에서 번역한 유엔의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게으름뱅이의 안내서’를 예쁘게 디자인하고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팜플렛을 제작해 유청연 부스를 찾아주신 분들이 나중에도 두고두고 보시며 SDGs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SDGs 카드뉴스 제작

1. 5월 4일 : SDGs 전체
2. 5월 18일 : SDGs 4
3. 5월 25일 : SDGs 10
4. 6월 1일 : SDGs 1
5. 6월 15일 : SDGs 5
6. 6월 29일 : SDGs 7
7. 7월 6일 : SDGs 12
8. 7월 13일 : SDGs 14
9. 7월 20일 : SDGs 5
10. 7월 27일 : SDGs 16
11. 8월 10일 : SDGs 6
12. 8월 24일 : SDGs 13

활동사진



◀ 화요세미나



화요세미나▶



◀ 수요일스터디



◀ 수요스터디



평화캠페인 ▶



◀ 평화캠페인



◀ 답사



답사▶



▲ 카드뉴스



▲ 카드뉴스

네꿈내꿈



동아리(팀)명	네꿈내꿈			
프로젝트 명	아쇼카, 내일은 학교에 가자			
소속학교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수원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세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대표
2	민지혜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팀원
3	이지은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팀원
4	최승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5	장은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팀원
6	김승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7	가혜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팀원
8	김나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팀원

9	황인성	경희대학교	영어통번역과	팀원
10	정모은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팀원
11	이지윤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팀원
12	조예빈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팀원
13	장채은	덕성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팀원
14	진영빈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15	박수연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팀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1. 활동목적 및 세부내용

1) 활동목적

유네스코 평화누리 지원금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네팔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단체를 알리는 활동들에 사용되었습니다. 지원금으로 지출을 한 내역들은 크게 세 가지로 청년청 입주,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하계 현지 활동가 파견이 있었습니다.

2) 세부내용

(i) 청년청 입주

첫 번째로 서울시 불광동에 위치한 청년청이라는 곳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청년청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로 활동을 하는 팀들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네꿈네꿈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청년청에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반상회에 참여하여 다른 단체의 소식도 듣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크라우드 펀딩을 홍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에서 주최하는 허블

링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허블링 페스티벌에서는 네꿈내꿈에서 제작한 파우치, 키링, 엽서들과 네팔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다이어리, 팔찌, 그리고 가방 등을 판매했습니다.

(ii) 클라우드 펀딩

기존 제출했던 보고서들에서 명시한 바 있듯이 처음에는 골수암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아쇼카와 아쇼카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오픈하려고 했던 플랫폼인 해피빈에서 올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한 명의 치료비만을 벌기에는 펀딩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클라우드 펀딩의 목적과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환아 지원에서 네팔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으로 새롭게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입이 많은 와디즈에서 펀딩을 열기로 결정했고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9일 까지 펀딩을 진행 했고, 약 74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페이지에 필요한 제품 사진(가방, 달력, 드림캐쳐, 엽서 등)은 직접 촬영하였고, 네꿈내꿈의 새로운 로고와 펀딩 페이지 제작은 외부 디자이너들을 섭외해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하였습니다. 펀딩 홍보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우선 매주 두 번씩 펀딩과 네팔 관련 카드뉴스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펀딩 이벤트를 열고 가방 착용 영상을 제작하여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펀딩은 목표 금액보다 약 7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펀딩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네팔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IT 교구나 도서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고, 일부 후원금은 기존에 계획했던 아쇼카의 치료비 용도로 가족들에게 전달 될 예정입니다.

(iii) 하계 현지 활동가 파견

올해 8월 중순에 네꿈내꿈은 3명의 팀원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파견을 결정한 이유는 클라우드 펀딩에서 판매할 물품 조달과 지원 학교 선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여러 학교를 지원해왔던 방식에서 구체적인 목표 학교를 지정하여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네팔 아이들과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파견 전에는 단체 내부 회의를 거쳐 기존에 지원해오던 대략 7곳의 학교들 중 2학교를 후보로 추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연락을 해서 일정을 맞추고, 각 학교의 대략적인 요구사항들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학교들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학교들에 전달할 도서들을 구매하기 위해 현지 출판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파견이 종료된 상태로, 지금은 직접 학교를 방문한 후 선생님들과 가졌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어떤 학교를 선택해서 후원할지 결정 중에 있습니다.

2. 성과 및 어려웠던 점

(i) 청년청

서울혁신파크 안에 위치한 ‘청년청’이라는 곳에 입주하게 되어 매 주 그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청 관계자를 통해 네팔 청년 단체인 PGG를 알게 되어 PGG 팀원들을 하계 현지 파견 활동 때 만나 네팔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청년청’에서 주최한 ‘허블링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네팔 수공예품들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진행해 판매 수익을 거두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수공예품 판매와 함께 저희 단체가 하는 활동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단체를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점은 청년청 사무실이 협소하여 크라우드 펀딩의 리워드 제품들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간을 빌려 리워드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i)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페이지에서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금액의 700%에 달하는 74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진행한 펀딩의 5배에 가까운 수익금을 얻어 예전보다 양질의 지원을 네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체의 홍보 효과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펀딩 홍보 목적으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이용하여 단체를 알리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단체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점은 기존에 계획했던 네이버 해피빈 펀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펀딩 목적과 계획을 변경하고 다른 펀딩 페이지를 찾아서 펀딩을 오픈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아쇼카를 위한 펀딩에서 네팔 아이들을 위한 전반적 지원을 목표로 펀딩 내용을 변경

했고 펀딩 오픈 시기가 늦춰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펀딩 페이지에 들어갈 리워드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부재로 인해 전문적인 사진을 펀딩에 이용하기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iii) 하계 현지 활동가 파견

하계 현지 활동가 파견을 통해 800권의 도서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2개의 학교에 전달하고 아이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지에서 도서를 구매하여 현지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서를 학교에 선물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현지 파견 활동을 통해 2개의 학교 중 어떤 학교에 집중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의 방향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우리의 지원이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팀원들과 토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점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 아이들과 충분히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우기로 인한 비 때문에 도로 환경이 열악하여 이동할 때 불편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 참가 소감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에 참가함으로써 네꿈내꿈은 지원금, 그 이상의 것들을 얻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원금을 통해 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회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었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리워드 구매부터 포장까지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름 현지 활동가 파견 때 네팔의 아이들에게 교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사업의 진행과 사무실 이전 등의 결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에 참가하여 1박2일 워크샵 등 여러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박2일 워크샵에 참가하여 여러 SDG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네스코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한국 청년들이 모인 네꿈내꿈은 어떤 가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워크샵에 참가하였던 팀원들이 가치와 목표를 여러 팀원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고 기획함에 있어서 네꿈내꿈이 실현할 수 있는 가치와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저희 단체의 활동이 쌓여 네팔의 미래에 아이들의 교육권,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는 저희 네꿈내꿈 단체와 그 안에서 활동하는 팀원들에게 단순한 지원,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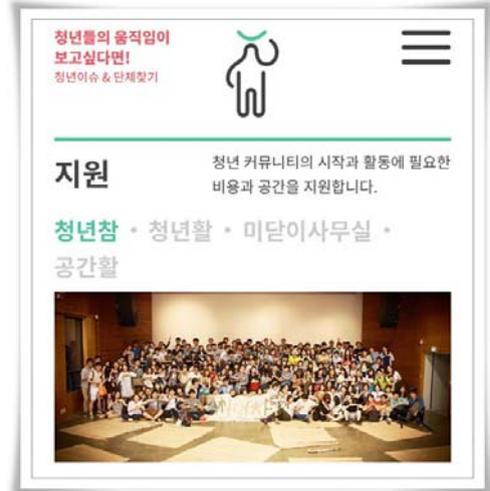
앞으로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진취적인 목표와 가치를 네팔에 전파하는 네꿈내꿈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활동사진



▲ 유네스코 평화누리 волон터 워크샵



▲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참 지원사업 선정



▲ 네팔 현지 활동가 파견 - 사전 답사
(Manarupi secondary school)



▲ 네팔 현지 활동가 파견 - 사전 답사
(Gairigaun secondary school)



▲ 청년허블링 페스티벌 참여

74% 7,446,900원 달성 성공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싶은 네팔 가방과 달력

네꿈내꿈

소셜 캠페인 성공에이리워드

▲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동국대학교 KUSA



동아리(팀)명	동국대학교 KUSA			
프로젝트 명	우울증 맞서기			
소속학교	동국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박환휘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대표
2	심기현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부대표
3	김다연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촬영담당
4	이주함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촬영담당
5	김이주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촬영담당
6	김현하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편집담당
7	김성준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촬영담당
8	구예린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편집담당
9	김소영	동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각본담당
10	장인혁	동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촬영담당
11	이연서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재정담당

12	김정연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각본담당
13	이시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편집담당
14	설수영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촬영담당
15	하진영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각본담당
16	안호정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편집담당
17	김유정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각본담당
자문위원	황승훈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13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의 이유 중 우울증, 심리불안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41.1%로, 우울증은 피곤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위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네가 이겨낼 노력을 해야한다. 요즘 다 힘들지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있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한심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선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팀의 목적은 21세기 들어서 더욱 문제시 되는 우울증을 주제 삼아 연구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여 현대인들에게 도움 주는 것입니다. 활동 이 후 각 각 조원들의 소감입니다.

이주함: 유네스코에는 지구의 평화를 위한 여러 테마가 있었고, 우리 KUSA-D는

여러 회의를 통해 우울증 테마를 택하게 되었다. 초중학교 때에 우울증때문에 크게 고생했던 친구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울증에 인한 피해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주제로 잡고 여러 사실을 알고나니 생소하였다.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꼴이 되어 내 자신이 창피하였다. 평화누리 활동을 하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과 우울증에 대해 조금이나마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김정연: 평화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학교의 또래 학생들이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는지 소개하고 질문하는 자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캠페인 소개를 들으며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저희 쿠사가 기획한 활동을 소개하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 간 진행된 세미나가 부담됐었지만 막상 가보니 다른 학생들과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도 준비돼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뚜렷한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평화누리 활동을 통해 굵직한 대학생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뿌듯합니다.

김성준: 평화누리라는 이름 아래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하고 평화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취지가 정말로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제가 한정되어 있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의견을 추합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진행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조금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김다연: KUSA 동아리에서 평화누리 활동을 시작한 가벼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란 주제를 정하고 우울증에대한 UCC를 만들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감정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누구보다 깊고 무거운 마음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UCC를 보고 한명이라도 우울증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시윤: 1. 좋았던 점

평화누리에서 우울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내가 처음 '우울증'과 관련한 활동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울증의 심각성과 우울증 환자들이 받는 시선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련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편집 능력이 향상되고, 대중들이 우울증 환자에게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힘들었던 점

평화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다양한 것만큼 힘든 점도 많았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기 벅차 초반에는 원활하게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영상 제작에 있어 시나리오 팀, 촬영 팀, 배우 팀, 편집 팀 등의 부서를 나누면서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팀원들 간의 마찰이 있었다. 활동을 마무리해나가면서 점차 팀워크가 맞았던 것 같다.

3. 참가소감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서 서툰 점이 많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활동 막바지에는 팀원들 간의 톱니가 맞아 들어갔지만, 초반에도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수영: 좋았던 점:

나름 팀원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도 뿌듯했다. 워크숍 진행같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을 유네스코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힘들었던 점 / 아쉬운 점:

본격적으로 UCC 활동을 시작할 때가 방학이었다 보니 부원들마다 사는 곳도 달라 모여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힘들었다. 또한 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소수가 다수의 몫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단체 채팅방에서 의견을 물어도 의견을 내는 사람만 내게 되고, 모두가

참여하는 느낌보다는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계획이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힘들었다. 사전에 팀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계획과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다. 특히 피드백을 받을 때 요구사항들을 카톡으로만 전달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아쉬웠다. 주변사람들의 관심, 우울증은 감기 같은 평범한 병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깊게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우울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조사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집중했다면 다른 우울증 ucc에 비해 차별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참가후기:

처음으로 참여했던 대외 활동이어서 막상 끝날 때가 되니 나름 뿌듯하고 후련했다. 이번 대외 활동을 경험 삼아 다른 대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인혁: 처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주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 목표를 접했을 때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다. 내가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감이 잘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나의 주위에는 우울증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의 유네스코 평화누리활동은 이런 우울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나도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던 중요한 계기였다. 사실 우리도 우울증을 숨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우울증 방지 UCC를 제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말하는 동시에 나조차도 많은 인식개선을 가질 수 있었다. 한 학기동안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안호정: UCC제작에 앞서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은 저에겐 정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누리라는 소속감으로 함께 UCC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평화누리라는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 이었습니다.

김유정: 좋았던점

- 주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힘들었던점:

-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거같다. 시나리오, 촬영,편집 간 진행상황과 피드백을 적절히 전달해줬어야 소통이 가능했지만 그러지 못해 전체적으로 할일이 더 많아졌었다.
- 전체적으로 계획이 유기적으로 짜여있지 않아서 일을 실행할때 어수선했던 느낌이였다.

참가소감:

-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저희 주제에 대해 더 생각해볼수 있었던 시간이였다. 일상적이지만 자세히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계획하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진행했을 것같다.

김소영: 6개월 정도의 평화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회의하고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서 진행할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일은 뜻깊은 경험 이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워크샵이나 팀활동을 통해 친해져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평화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UCC라는 하나의 성과물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뿌듯했습니다.

김이주: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행보인 것 같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그들의 관심과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역사가 증명하듯 항상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었기 때문이다. 2018년 스무 살을 맞이하여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에 참가한 것이다. 청년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길과 책임감을 워크샵과 다양한 강연을 통해 배웠고, 동국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KUSA)와 함께 그 길을 개척하여 한걸음 나아갔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이번에는 좋은 건강과 행복한 삶(3번)을 목표 삼아 1년을 달려왔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17

개 목표를 모두 한국사회에 전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이 말했듯 나는, 우리는, 청년은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구예린: 먼저 평화누리활동을 통해 ucc제작으로 전세계적인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뜻깊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영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 등 여러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 협동하고 분업하여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상을 보니 공동체로서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몸소 느끼게되었습니다.

하진영: 처음 시작 할 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토의를 거쳐 청사진이 잡히고 실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시나리오와 배우에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Don't worry, Be happy!' 의 의미를 계속 되새길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수많은 협업을 통하여 팀활동이 주는 시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연서: 대략 4개월 동안의 평화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든 쉬운 일은 없다' 였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 충돌 또한 평화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학과, 학년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평화누리는 제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날 활동입니다. 팀원들 모두 수고 많았고 좋은 경험을 선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활동사진



▲ 워크샵에서 단체샷



▲ 워크샵에서 단체샷 2



▲ 콘티 회의



▲ 대본 리딩하며



▲ 병원선 장소 사전 답사



▲ 재정 회의

목사발



동아리(팀)명	묵묵히 사고하고 발전하자			
프로젝트 명	지속가능 우이사이			
소속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윤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 대표, 프로젝트 총괄
2	이주혜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대표, 예산 및 회계
3	하성민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예산 및 회계
4	정예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대외협력 (카페거리)
5	박세미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대외협력 (강북구청)
6	정형희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회의록 작성

7	이소연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대외협력 (카페거리)
8	최은지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대외협력
9	이현경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사진 기록
10	변우주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자료정리, 디자인
11	진희연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자료정리, 디자인
12	김태은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원, 대외협력 (민주묘지)
자문위원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1) 활동 목적

SDG 11. 지속가능 도시와 커뮤니티

저희 팀은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라는 가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항목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율을 높이는 것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이며, 각각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도심으로의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도시화로 인한 녹지감소와 도시의 생활방식이 온실가스 배출을 높여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곳에서

거주 환경을 향상하여 도심으로의 집중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11번 항목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에서의 적용을 고민하다

이에 저희는 **한국의 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 고민해 보았고,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 산업 시설이 위치하거나 상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풍부할 때,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교육 및 문화시설**입니다.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환경은 해당 가정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양질의 교육 및 문화시설이 없다면 사람들은 도심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도시 내 빈부격차의 해소**입니다. 도시 중심부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몰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심으로의 상업, 문화시설의 집중을 가속화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을 고민하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저희의 학교 주변지역에 대입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 빈부격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성장 동력과 교육 및 문화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내의 문화자원 중 하나인 **국립 4.19 민주묘지**를 ‘다크투어리즘’ 관광지원으로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 하고,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11번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인 강북구청은 4.19민주묘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중 대부분은 연 1회 진행하는 추모제 같은 **단기 행사들**이었으며, 그 조차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은 **형식적 교육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이에 우리는 청년층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크투어리즘”을 대안으

로 주목하였습니다. 무거운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문화적 흐름에 발맞추어 4.19민주묘지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결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 세부내용

활동의 세부내용은 첫째, 현황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와 둘째, 모색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저희의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단계와 같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탐방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강북구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두 번째 단계의 연장선상에서 강북구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의 세부 내용을 월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4월	문헌조사
5월	설문조사 및 현장탐방
6월	이해관계자 인터뷰 강북구청과 협약체결
7월	강북구청 협력 프로젝트 기획
8월	프로젝트 구체화
9월	행사 협조요청 및 관계자 미팅

[4-5월 사전조사]

저희는 다크투어리즘 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첨부자료 1) 또한 국립4.19민주묘지와 주변의 4.19카페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방문자 현황이나 주변 시설 및 분위기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 4.19 민주묘지에 관한 현재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

인 폼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립 4.19 민주묘지를 아는 시민은 86%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 콘텐츠 부족, 교통 불편, 홍보 부족, 명칭&이미지의 부재 등의 이유로 방문하지 않았거나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응답자가 6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4.19 민주묘지가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4.19 다크투어리즘 스탬프 투어’와 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2일간의 행사를 구상하였고,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희의 구상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첨부자료 2,3)

이후 저희는 강북구청 및 4.19 국민 문화제 추진 위원회에 방문하여, 현재 국립 4.19 민주묘지 이용 현황 및 앞으로의 사업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청 및 4.19국민 문화제 추진위원회 측은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한 4.19의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와 연계하고 대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4,19의 상향식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북구청 측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주변 카페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에, 제안해 준 사업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분들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결과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측은 4.19 혁명이 재조명되고 다양한 세대에 재인식되기를 원하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다각도로 조명되지 못한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4.19혁명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6월. 강북구청과 파트너십]

강북구청에 국립 4.19 민주묘지를 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의 청년문화발굴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시그날’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2018년 11월까지 총 4,068,000원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관-학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고, 유네스코 평화누리 동아리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목

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8월. 프로젝트 기획 및 구체화]

7~8월에는 본격적으로 강북구청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갔는데, 첫 번째로 관광코스를 구상해 각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였고, 두 번째로 이벤트의 구체적인 진행방안과 기념품 제작에 대한 논의를 약 6회 진행하였습니다.

(1) 관광코스 구상

강북구 내 역사문화투어로서 [근현대사기념관-우이동 4.19카페거리-백련공원-국립4.19민주묘지] 4개 지점을 잇는 스탬프 투어를 구상하였습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와 인근의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과 부합하는 근현대사 기념관을 추가하였고,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피서지로 자주 방문하는 백련 공원도 포함하여 부담 없고 흥미로운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각 기관에 프로젝트의 취지와 함께 협력을 요청한 결과,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고, 4.19 카페거리의 카페 중 1곳인 '아뜨랑스'에서 행사에 협찬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세부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벤트 방안과 기념품 제작에 대한 논의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온라인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SNS 홍보 이벤트”입니다.

스탬프 투어의 경우, 4개의 관광코스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각 지점마다 행사 부스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미션을 수행하면 스탬프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어 지점에서 받은 약도에 4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은 성실한 참여자의 경우, 마지막 지점에서 추가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SNS 홍보 이벤트”는 이번 행사 자체를 활성화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우리의 관광코스가 많이 노출되어 이벤트 이후에도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관광코스에 방문하여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SNS 계정에 올리면 추가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념품은 국립4.19민주묘지, 4.19 혁명, SDGs, 지속가능 도시와 커

유니티, 유네스코 평화누리 동아리 등의 의미를 담아 제작될 예정이며, 저희가 직접 제작한 디자인을 제작업체에 전달을 마쳤습니다. 현재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으나 결과발표회가 있는 10월 중순 무렵에는 완성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워크숍]

마지막으로 평화누리 활동의 후속활동으로 강북구청과 협력프로젝트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의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주제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의견교환을 할 목적으로 지도교수님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1) 지속가능한 도시와 개발 사례에 관한 토의, (2) 활동 대상지인 국립4.19민주묘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 (3) 활동 팀원 간 상호 피드백과 같은 순서로 1박2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토의는 (첨부자료 2)과 같이 진행되었고, 특강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강의를 듣고 4.19혁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를 관람한 후,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19혁명의 가치 중 어떤 점을 강북구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일정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자유 시간을 활용하여 서로 역할분담 했던 부분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추가되었으면 하는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팀원 간의 팀워크를 다지고 활동의 향후 계획과 실행 방법에 있어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하고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3) 활동성과

저희의 활동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와의 협력구조를 형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저희는 국립 4.19 민주묘지를 활용한 지역발전방향에 대해 지자체인 강북구청과 공감대를 확인했고, 지금까지 관의 입장에서 직접 실행하기 어려웠던 측면을 대학생 동아리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시도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던 다양한 모델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번 협력 시도는 강북구청과 덕성여대 간에는 드물게 진행되어왔던 관학협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번 평화누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제로 듣고 한데 모아 보았다는 점이 큰 성과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시민, 강북구청, 4.19혁명 문화제 추진위원회, 국립 4.19민주묘지 관리사무소,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4.19카페거리 카페의 사장님 등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설문조사, 서면인터뷰, 대면인터뷰를 통해 수집함으로써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논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사무소와 4.19혁명 희생자유족회측은 보다 엄숙하고 조용한 추모공간을 원하는 반면 시민, 대학생, 그리고 4.19카페거리 카페 사업자 들은 밝고, 활기차며 생기 넘치는 다채로운 추모행사를 바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이 문제가 상업성에 대한 찬반의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나, 약 5개월간의 평화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이 문제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방식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로 사건을 경험한 세대와 역사적 사건으로 교육받은 후속세대 간에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간극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어려웠던 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언급했던 바와 같이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추모하는 방식에 대한 세대 차이는 곧 기관 별 입장차이로 이어졌습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 측은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의 입장을 고려할 때, 국립 4.19민주묘지 공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족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조용하고 엄숙하며 권위 있는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4.19혁명 유족회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국립4.19민주묘지의 활용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과 주변 상권이 원하는 밝고 생기 넘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하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

는 방안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5) 참가소감

- 평화누리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는 해 본 적이 없던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내 활동이 아닌 대외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번 평화누리를 통해 제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보다 대규모 팀으로 참여하였는데, 여러 인원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였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 우선 유네스코 평화누리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SDGs)의 여러 주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주변 지역과 장소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터라 더 흥미롭고 의욕이 넘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라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쉽지 않았지만 경험이 많은 선배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합치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세부 주제를 정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하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발전을 찾아보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평화누리 활동은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 커뮤니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보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 국립 4.19 민주묘지의 활용문제에 애착을 갖게 됐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즐기고 역사를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많은 이들이 4.19 민주묘지에 모여 함께 미래를 의논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 이번 평화누리 활동은 정치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저로서는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고, 발전을 위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 평화누리 활동은 세계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할 기회가 되었고, 우리가 만든 방향이 좋은 영향을 미쳐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팀원들과 함께한 활동들이 동아리나 대외활동이 처음인 나에게는 뜻깊었습니다. 평화누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도 물론 있었지만 팀원들과 얘기하며 밤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새로웠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프로젝트가 막바지를 달리는 것을 생각하면 팀원들이 모두 대견합니다.



활동사진



▲ 국립4.19민주묘지 답사
(4.19혁명기념관, 4.19학생혁명기념탑 등)



▲ 4.19카페거리와 그 주변 지역 답사



▲ 4.19혁명기념관 앞 : 4.19혁명과 민주묘지 설립에 관한 내용 설명 듣기



▲ 프로그램 계획 및 정리 회의



▲ 유네스코 평화누리 워크숍 활동 1차



▲ 유네스코 평화누리 워크숍 활동 2차



▲ 지속가능한 우이사이 회의 1



▲ 지속가능한 우이사이 회의 2



▲ 지속가능한 우이사이 회의 3



▲ 지속가능한 우이사이 워크숍

뿌리와 새싹 온새미로



동아리(팀)명	뿌리와 새싹 온새미로			
프로젝트 명	뿌리와 새싹의 작은 움직임			
소속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나연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대표
2	유민서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부대표
3	권홍빈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4	김해리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5	박수민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자문위원	유창현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조교수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뿌리와 새싹 온새미로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천을 홍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 축제에서 환경 부스를 운영하였다. 부스에서 멸종 위기 동물 파츠를 붙인 귀걸이를 해당 동물에 대한 설명이 적힌 종이와 함께 판매하여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또한 수익금은 전액 유기동물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기부하였다.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하여 팀원들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알리며 뿌듯함을 느꼈으며, 수익금을 유기동물들을 위해 사용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동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한, 서울 극장에서 열린 서울 환경 영화제에 참가하였다. 원래는 리틀포레스트를 관람할 생각이었으나, 인기가 많아 매진되는 바람에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라는 같은 시간대의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비엔나 동물 보호소에 관한 내용으로, 야생동물들이 구조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동물들의 곁에서, 즉 인간이라는 울타리의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사람들로써 환경 영화를 본 것은 올바른 환경 인식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COEX에서 열린 ENVEX 2018에 참가하였다. ENVEX 2018은 우리나라 최대의 환경 전시회로, 다양한 기업들에서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각기 다른 기업들에서 기후, 토양,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놀라웠고, 우리가 미래에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었다.

기상청 방문은 과에서 실시한 것인데, 뿌리와 새싹 부원 모두가 참가 가능하여 함께 참가하였다.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과 기상청이 날씨 예보, 지진 대비, 기후 변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기상청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6/5 환경의 날에는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환경 부에서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춤을 춰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SNS에 올려 홍보하는 행사를 해서 참가해볼까 했으나, 모두가 춤을 잘 출 자신이 없어 포기하고 대신 이벤트를 실시했다. 기숙사에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6/5 하루동안 전날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200% 이상 감소하면 구글 폼을 작성한 학생에 한해 추첨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 구글폼에는 텀블러 사용 등 환경을 위해 실천한 활동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포스터는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 부착하였다. 결과는, 우리가 정한 200%에는 못미쳤으나 전날대비 100% 감소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팀원들과 함께 유네스코 평화누리 워크숍에도 참가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다른 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다른 팀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었다. 워크숍의 막바지에서는 노란 종이에 우리 팀의 다짐을 써서 줄에 걸기도 했다.

7월 5일에는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 토론회가 열렸고, 평화누리 활동을 하고 있던 덕분에 팀 대표가 토론회에서 청년 대표로 참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청년의 시각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봤을 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07/21-07/28에는 전세계 뿌리와 새싹 대표들이 영국 윈저성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진행할 환경 프로젝트들에 대해 토론하고 제인구달 박사님께 피드백을 받는 캠프가 있었다. 팀 대표가 한국 대표 1인으로 선정되어 이 캠프에 다녀오게 되었다. 뿌리와 새싹 초등교육, No Waste November 캠페인, R&S Film Ark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캠프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Film Ark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담해서 맡기로 해서 현재 로고 작업을 진행중이다. Film Ark는 세계의 환경 영상들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웹사이트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으로, 그리스 대표와 함께 활발히 진행중이다.

8/29에는 Climate Scouts 활동과 연계하여 서울 원명초등학교에서 초등 환경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면?’을 주제로, 아이들의 시각과 가정 환경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인식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래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이런 나라가 물에 잠겨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놀러가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의 급식이 아닌 아보카도가 잔뜩 들어간 맛있는 급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 등으로 아이들에게 와닿게 진행했다. 또한 퀴즈를 틀리면 얼음을 깨는 펭귄 얼음깨기 게임을 고안하여 아이들이 수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겨울왕국의 테마와 영상을 보여주며 진행해 친숙하고 재미있는 수업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사랑을 했다’ 노래 개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가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가지는 생각들을 엿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아이들의 행동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미래에 현재의 환경 문제들이 나비효과처럼 일으킬 커다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겪게 될 것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이고, 그렇기에 어린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우리가 초등 환경 교육이 환경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현재는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자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활동들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어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보호에 대해 설명하는 계정을 만들 것이며, 멸종 위기 동물과 관련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메시지를 이용하면서도 이런 동물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로고 작업이 진행 중인 Film Ark 또한 온전한 플랫폼으로서 올해 내로 자리잡을 것이고, 원저성에서 진행한 No Waste November 등의 캠페인들도 프로젝트 상황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홍보해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해 뿌리와 새싹이 만든 작은 움직임들은 조금씩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냈으리라 믿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의 미래를 꿈꾼다.

활동사진



▲ 이화여대 대동제 환경 부스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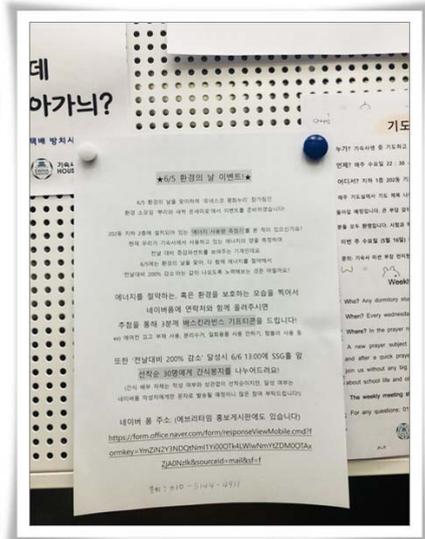
▲ 서울 환경 영화제 관람



▲ 국내 최대 규모 환경 전시회 ENVEK 2018 관람



▲ 기상청 답사



▲ 6/5 환경의 날 기숙사 이벤트



▲ 유네스코 평화누리 워크숍 참가



▲ 워크숍 팀별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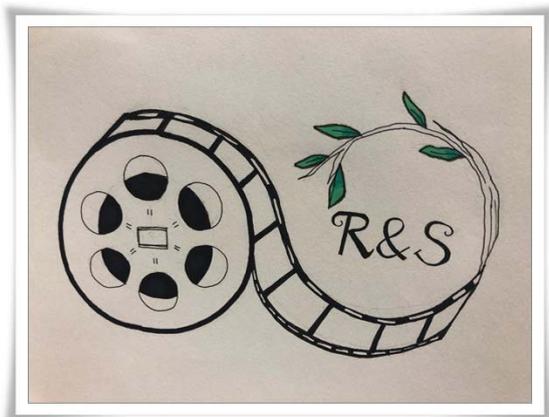
▲ 7/5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
토론회 청년 대표 참가



▲ 원저성에서 열리는 전세계 뿌리와 새싹 대표
모임 한국 대표로 참가



▲ 제인구달 박사님과의 만남



▲ 진행 중인 Film Ark 로고 작업



▲ 전세계 뿌리와 새싹 회원들 단체사진

새꿈달콤



동아리(팀)명	새꿈달콤			
프로젝트 명	새꿈달콤(새로운 꿈 달콤한 꿈)			
소속학교	경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선문대학교, 한라대학교, 한신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낙운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표
2	장인선	선문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	부대표
3	차민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팀원
4	김병수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팀원
5	박준영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팀원
6	강호정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팀원
7	김재정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	팀원
8	변상우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팀원
9	권의열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팀원

10	정승연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팀원
11	배수민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팀원
12	장다영	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팀원
13	김도연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팀원
14	신명진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팀원
15	이재준	선문대학교	산림환경자연학과	팀원
자문위원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우리 청년들의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청년들의 빈곤퇴치를 최종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좋은날을 이야기 하다'라는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젠더, 한반도 평화, 기본소득, 민주주의, 청년인권, 환경. 이렇게 여섯 개 분과로 나누어 우리 사회에서 평화롭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해보았습니다.

사회자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변, 그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참가자 한명이 1시간마다 1개의 분과씩 돌아가며 총 3개의 분과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각 분과에서 3번의 토론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컨퍼런스가 끝난 후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에서는 '한반도평화'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DMZ순례를 다녀온 경험, 종전, 남북 교류, 6.25전쟁, 통일 등,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단어들보다는 위협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

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통일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통일이라는 것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 하였으나,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통일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통일보다는 종전의 형식으로 끝나고, 각 국가의 체계를 유지하며 문화 교류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차차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여졌습니다.

두 번째, 젠더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간,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어떤 한 성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화장, 여성 전용 주차장, 경찰관, 소방관, 숙박시설, 정치인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성교육에 관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초중고 시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받은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부터, 성교육에서 조차 그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성역할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신체접촉 시, 성폭력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와 선천적 성, 사회적 성, 그리고 성지향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올바른 페미니즘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으나, 결국 올바른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기본소득에서는 기본소득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는 회원들에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 이후,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취미, 여행 학비, 생활비 등, 자신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쓴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거액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소득을 바로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단점을 보완 시킬 수 있는 먼 훗날에는 시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네 번째, 청년인권에서는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여 본인이나 주위에서 청년인권이 안 지켜지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 같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더 적게 뽑고 기존보다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열정페이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어떻게 하면 청년인권이 지켜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수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청년인권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집에서 에어컨 틀고 드라마 볼 때, 친구들과 맥주를 마실 때 등, 엄청 소소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흔히 말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이젠 그 '소확행'마저도 실행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로 입이 모아졌습니다.

다섯 째, 민주주의에서는 이번 6.13 지방 선거 때 투표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왔습니다. 90% 정도가 투표를 하였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내년에도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반 나뉘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쪽에서는 투표를 하여도 변하는 것이 없고, 투표를 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였다고 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도 불신, 비리, 부정부패, 청렴하지 않음, 책임감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일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임원선출을 하거나, 2016년 촛불집회등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은 무엇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가장 참여하기 쉬운 투표, 국민 청원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고, 직접 정당 활동을 하며 정치인이 되기, 시민 단체를 통한 캠페인 활동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소소한 실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개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와 생산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들의 6개 분과에 모두 참여해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크게 남았습니다. 또한, 시간을 무한정으로 주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각 분과마다 1시간씩 끊어야 했다는 점도 참가자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1시간으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시간을 끝내다보니 참가자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점에서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와는 관련 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애기한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시간 제약의 이유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캠퍼스에 돌아가 캠퍼스 학우들과 함께 더 많은 공부를 해보고, 활동을 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직접적인 활동 공동체를 구성하고,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에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기대효과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플랫폼을 더욱 단단히 구성하고, 꾸러 나간다면 결국에 저희가 아직 풀지 못한 청년들의 빈곤, 평화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인 청년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으로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 컨퍼런스에 오지 못한 학우들에게 컨퍼런스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컨퍼런스의 내용을 토대로 공동의 교재를 발간하기 위해 꾸준히 추가적인 회의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 캠퍼스에서 같은 주제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동의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목표로 모임을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꿈달꿈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행동 할 것입니다.



활동사진



◀ 여는 예배



▲ 참가자 소개



▲ 공동체 놀이 (아이스 브레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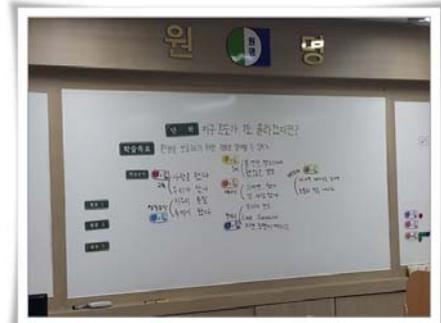
▲ 활동수칙 만들기



▲ 청년, 좋은 날을 이야기하다.



▲ 초등 교육 활동



▲ 초등 교육 활동 칠판



▲ 달는 예배

숙명여자대학교 KUSA



동아리(팀)명	숙명여자대학교 KUSA			
프로젝트 명	淑明, 맑음			
소속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장지안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	대표
2	백이선	숙명여자대학교	전자공학	부대표
3	김예지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	홍보부원
4	박채림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	홍보부장
5	배은수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	기획부
6	송예은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테슬	기획부
7	양동연	숙명여자대학교	관현악	총무
8	유수빈	숙명여자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	연합부

9	이예준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	기획부
10	이예현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기획부장
11	이유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연합부장
12	정나희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	기획부
13	황수빈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홍보부
14	허윤정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홍보부
자문위원	신희선	숙명여자대학교	정치학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활동 목적 : KUSA는 유네스코의 이념 아래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이기에 국제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동아리의 특징에 맞추어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이라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 공부하고 널리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우리 숙명여대 KUSA는 1학년 신입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널리 알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세부 내용 : 우리의 활동은 크게 2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인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6월 두 달 동안 SDG 5번과 16번에 해당되는 '위안부'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선 5월의 학교 축제에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위안부' 관련 공부를 위하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서울여대, 숭실대 KUSA 학생들과 다녀왔습니다. 박물관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위안부’관련 문제도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전쟁과 여성인권 관련 문제도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게 국제사회의 여성인권과 여성교육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준비한 영상과 강연을 따로 신청하여 들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책이나 인터넷 자료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정대협 직원의 말씀들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캠페인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안부’문제 외에도 틈틈이 여성 인권과 관련한 서적을 읽고 다양한 강연에 참여하여 기초를 쌓았습니다. 무료로 열려있는 강연이 많았고 학교 자체에서도 여성인권 관련 내용의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강연자를 모시지 않아도 되어 좋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왜 여성인권 관련한 이슈가 떠오르게 되었는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해 알아가고 더 나아가 전쟁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캠페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박물관 관람 후에는 후기를 나누고 독서 이후에는 책 내용 관련 토론을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며 캠페인에 반영할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캠페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진행 방식 또한 오랜 시간을 들여 기획하였습니다. 캠페인 진행 방식은 크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과 퀴즈로 나누었습니다. 1억인 서명은 뱃지에 사용할 문구인 ‘내 마음은 지지 않아’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대협에 계획서와 함께 문의했을 때 서명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퀴즈는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판넬 형식으로 전시하여 그것을 참가자들이 보고 우리가 내는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형식이었습니다. 2가지 활동에 모두 참여하면 홀로그램 스티커를 주었고 1가지만 참여하면 책갈피를 주었습니다. 관련 물품은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당시 유행하던 물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의미가 담겨서인지 캠페인 반응이 좋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 교직원분들도 참여하였습니다. 홀로그램 스티커와 책갈피에는 ‘위안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스티커는 ‘위안부’할머니들이 직접 하신 말씀과 직접 제작하신 글씨체로 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위안부’ 관련 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또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행하던 물품인 원고지 배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원고지 배지 또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스티커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하신 말씀과 직접 제작하신 글씨체를 담았습니다. 적은 홍보로도 금방 완판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SNS를 보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고 다른 학교에서도 직접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이때의 배지 수익금은 전액 정대협에 전달하였습니다. 전액 기부가 가능했던 것도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배지를 제작할 때 최소 수량이 필요하여 문제가 생겼고 예산안을 변경했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더 좋아 처음부터 더 많은 수량을 계획했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기부금액이 모였을 걸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활동할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존입니다. 이는 SDG 3번과 15번에 해당됩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7월, 8월 중에 하기로 계획하였지만 관련 전공자가 없었고 부족한 지식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교육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작초기인 4월에 육상 생태계 보호와 관련하여 동물 보호를 주제로 연습단계를 거쳤습니다. 인터넷 자료 조사 후 관련 자료를 SNS에 카드 뉴스 형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스스로 공부하기에도 좋고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적은 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터넷, 서적 자료들을 정리하며 7월에는 환경 관련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에는 생태계 답사를 목적으로 산과 계곡이 많은 대성리를 장소로 선택하였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데 자연환경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놀러만 가던 때와는 달리 답사를 목적으로 가보니 벌레의 수, 나무, 산의 수, 공기의 질, 기온 등이 서울과 많은 것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만 학습하고 관련 전공자가 없어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만 그치고 심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쉬운 주제를 선택하거나 관련 전공자를 찾아 같이 답사를 간다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활동 중간에 평화누리 워크샵도 매우 도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워크샵 기간에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는 어떤 점이 부족했고 잘했는지 평가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연까지도 평화누리 활동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

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활동 내용은 SNS에 꾸준히 업로드하였고 앞으로도 공부한 내용들과 활동내용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활동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아 올해 말까지도 관련 활동을 지속하여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성과 : ‘위안부’캠페인을 통해 약 200명의 서명을 받았고 교내 학생들에게 ‘위안부’ 지식을 전달하여 교육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문제는 모두가 잘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혹은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캠페인을 통한 홍보는 교육에도 효과가 크게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적은 금액이지만 벤틀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을 우리 동아리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점, 우리 동아리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는 점도 소소한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화누리 활동을 주도했던 우리 동아리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해보지 못했을 경험들을 캠페인이나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좁은 강의실에서 벗어나 더 넓은 장소에서 주체적으로 찾아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교육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몸소 배웠기에 더할 나위 없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점 :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계획했던 내용을 진행하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가장 기대하고 있었고 꼭 참여하고 싶었던 멸종위기의 벌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진행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선택한 주제가 어려웠던 점도 우리의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이에 맞추어 예산안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야 했던 점도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15명이라는 인원이 모두 참여 가능한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회의는 항상 모두가 참여하였고 캠페인은 시간을 분배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문제되는 점이 없었지만 답사 같은 경우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참가 소감 :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많아 너무 유익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참여

했던 인원 모두가 처음해보는 일들이었기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뭉쳐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는 과정에서조차 배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기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되어 스펙이나 대외 활동이라는 기록을 떠나 즐거운 추억으로도 남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든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가 뜻 깊은 시간을 보낸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평화누리 활동에도 참여하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동사진



▲ 4월 5일 식목일 기념 꽃씨 심은 날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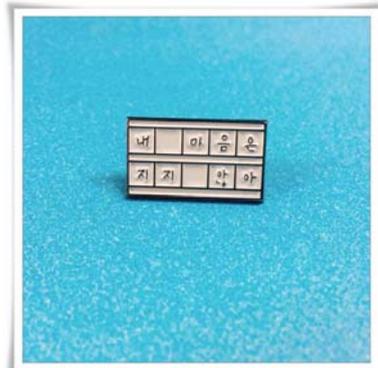
▲ 숙명여대 축제 기간 '위안부' 캠페인



▲ 캠페인 굿즈



▲ 회의



▲ '내 마음은 지지 않아' 배지

아우팅



동아리(팀)명	세상밖으로 아우팅			
프로젝트 명	아우팅			
소속 학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선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회장
2	이혜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부회장
3	고은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4	김종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5	김지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6	김혜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7	문재승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8	박지석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9	박찬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대외부원
10	안유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회계

11	윤형식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12	이경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13	이상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14	이아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15	이지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대외부원
16	이현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서기
17	이혜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대외부장
18	조인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자문위원	김애화 교수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세상밖으로 아우팅은 소외 계층의 장애 학생들에게 여러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활동 목적을 두며, 한 달에 두 번 수도권 지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여러 체험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여름 방학을 맞아 작년에 활동했던 학생들과 함께하는 ‘아우팅 여름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과 또래 학생·선생님과의 사회성, 또 특별한 경험과 추억까지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우팅 여름캠프’는 2박 3일의 시간 동안 학생 14명, 선생님 23명 총 37명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했으며, 자기소개 프로그램, 저녁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물놀이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마무리 프로그램, 우천 시 프로그램 총 7개의 활동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프로그램은 처음 보는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아우팅 친구들의 특징을 기억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학생 스

스로 자기소개 판을 작성해본 뒤 자기 자신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보고, OX 퀴즈와 카드 뒤집기 등의 게임을 통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낯선 장소에 적응하고, 작년에 활동했던 학생들과 이번 연도에 활동 중인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며 친구들, 선생님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고, 저금통 마술을 배워보며 친구들 앞에서 직접 마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우팅 마법 학교’라는 컨셉을 정하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요술 봉을 만들고, 그 요술 봉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니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마무리에는 간단한 마술을 배워보며 흥미로운 경험과 서로에게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은 팀원들과 협동하여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팀을 나누어 재료 얻기 미니 게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 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은 치즈 감자볼, 치즈 밥 전, 황도 푸딩 등의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또 나누어 먹으며, 색다른 경험과 친구들과의 협력, 평소에 요리를 해주시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놀이 프로그램은 미니게임을 통해 새로 만난 친구들,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물놀이 활동을 통해 안전수칙을 지키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만큼, 뜨겁고 지치는 여름을 시원한 물놀이를 통하여 재미있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먼저 물총과 비치볼을 활용한 미니 게임을 진행하며 몸을 푼 뒤, 준비 운동과 구명조끼 착용을 마친 후, 계곡에서 재미있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아우팅 친구들, 쌤들과 협동하며 친해질 수 있고, 자신의 장기를 아우팅 친구들, 쌤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친구들, 선생님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장기 자랑을 통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장기를 뽐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고, 블랙 라이트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두 어울려 뛰어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 학기 아우팅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원을 빌어 새로운 다짐을 다져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무리 프로그램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진행하고 상호작용해볼 수

있고, 한 학기 아우팅 활동을 돌아보며 나만의 앨범을 만들어보고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캠프에서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서로를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앨범 만들기 활동을 통해 2박 3일 간의 활동을 추억하였고, 롤링페이퍼와 시상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유대감을 나누며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를 무사히 마친 뒤, 저희는 회의를 통하여 캠프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동 공간이 충분했다, 계곡이 가까워서 좋았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면 장소 구분이 잘 이루어졌다, 식사의 양이 적당했고 맛이 좋았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보며 독립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모든 프로그램이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지만, 휴지나 물티슈 같은 기본적인 준비물을 많이 놓쳐서 아쉬웠다, 날씨가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무더웠다, 밤에 벌레가 너무 많았다,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했던 것 같다, 산책할 곳이 부족했다, 신발이나 짐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같은 장소에서 모든 활동들이 진행되어 정리가 부족했다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일회용품의 사용 대신 텀블러 등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식사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포크 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물놀이 프로그램은 자유 시간의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칭찬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등 다음 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가 아이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 층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2박 3일 동안 함께 붙어 지내며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학생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돌아보며,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2학기에도 함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해오던 여름 캠프 프로그램이지만,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더욱 알차고 풍족했던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 큰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고 학생들 뿐 아니라 아우팅 활동을 함께 한 모든 선생님들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 기뻐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번 캠프가 뜻 깊게 느껴졌던 만큼, 아이들에게도 이번 아우팅 캠프가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길 바라봅니다.



활동사진



▲ 물놀이 프로그램-화채만들기



▲ 여름캠프-단체사진



▲ 여름캠프-둘째날 저녁식사



▲ 여름캠프-둘째날 저녁식사



▲ 여름캠프-마지막 프로그램(앨범 만들기)



▲ 여름캠프-선물증정

아울



동아리(팀)명	아울			
프로젝트 명	아울이 아우르다			
소속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이수영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대표
2	박제은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	부대표
3	김상훈	한국외대	행정학과	총무
4	이홍일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5	조예진	한국외대	영어과	
6	이진우	한국외대	영어통번역과	
자문위원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Owl 팀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양질의 교육과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교육을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한국 시민들이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부여하는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겪는 차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들 또한 가족임을 인지하고 불평등 감소 시키는 것이 저희가 프로젝트의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부여하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깨기 위한 활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직접 해외입양인들과 한부모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저희부터 교육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싱글맘들과 해외입양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배우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활동 보고와 해외입양인 및 한부모 가정들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5~6월 달에는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들을 통해 한부모 가정과 해외입양인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들의 메시지를 담아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를 방문하여 미혼부모와 해외입양인에 관한 OX 퀴즈와 이들을 앞으로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인권존중서약을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외, 기말고시 기간에 간식 사업을 열어 SDGs에 대해 알리고 동아리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누리 활동 하반기에 들어 7월20일에 한인해외입양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였

습니다. 싱글맘의 날 마라톤 대회에서 알게 된 해외입양인 단체 ‘SPEAK’와의 만남을 인연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풀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신뢰도를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영어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팀이 모두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7월 28일에 SPEAK 단체들이 저희 동아리를 해외입양인이 주체하는 미술 전시회로 초청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녹여낸 작품과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로 승화된 해외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다양한 삶을 살아온 해외입양인들을 보면서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이미 알았던 사실들 보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웠고 이 배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한국시민에게 알리자하는 마음으로 다음 캠페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 17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폭염 때문에 두 번이나 미뤄지고 마지막 평화누리 활동이 되었던 외부 캠페인이었던 것만큼 모든 팀원이 열심히 활동에 임해주었습니다. 동아리 취지와 소개가 적혀있는 피켓들, 한부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보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억의 뽑기 게임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Leaving no one behind”, “Equality” 등 SDGs와 관련된 문구를 작성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께 무료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입양인과의 만남들을 통해 팀원들과 느낀 바를 서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들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서명을 받고 모든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 활동의 취지에 관심을 가져다 주셔서 어렵게 준비한 보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팀원들이 폭염 속에서 즐기고 진심으로 캠페인에 임해줘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평화누리 활동을 통해 저희가 계획하고 목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한국 사회의 실태를 알리고 이로 하여금 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써 가져야 할 마

음가짐에 대해서 알리고 불평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보람이 있었던 만큼 활동 하는 기간 동안 몇 가지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평화누리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팀은 또한 5명이라는 적은 수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활동에 참가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팀원들이 해야 할 일의 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동아리와 활동 홍보를 통해서 저희 동아리에 두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원들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역할 분담을 해서 활동 준비나 활동진행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평화누리 활동으로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이고 학교 공식 동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교내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가 활동기간이 있는지라 센터 담당자님께서 활동가능여부를 여쭙보았을 때 센터의 아이들을 방문하고 봉사하는 단기적인 활동은 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계획을 또 변경해야 했습니다. 활동 계획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이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구성원 (센터의 아이들,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계획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바 같이 활동을 했다면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지만 한편으로 대상을 좁혀서 그들에게 더 집중하고 더 깊은 배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부분은 각 개개인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별 받는 이들에 대해 알아가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불평등을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외입양과 한부모라는 주제는 조금 난해하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기까지 과정과정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학생으로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활동을 통해 느낀 바를 잊지 않겠습니다.



활동사진



▲ 5월 5일 제 8회 싱글맘의 날 캠페인



▲ 5월 11일 제 8회 싱글맘의 날 기념 컨퍼런스



▲ 6월 8일 경희대/외대 인식개선 캠페인



▲ 6월 20일 찾아가는 간식사업 & 동아리 홍보



▲ 7월 28일 해외입양인 단체 SPEAK와 인터뷰



▲ 7월 28일 해외입양인 단체 전시회 방문

엘 네피제



동아리(팀)명	엘 네피제			
프로젝트 명	“중동 분석” 세미나 연구			
소속학교	연합동아리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팀장
2	조덕희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부팀장
3	박형준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팀원
4	주현준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팀원
5	하도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팀원
자문위원	Siavash Saffri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엘 네피제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정기 세미나 진행입니다. 이번학기 네피제는 기존에 진행했던 것처럼 매주 1회 모여서 각자의 연구주제를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피드백 및 제안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세미나 일지를 페이스북 및 공식 티스토리 사이트에 업로드했으며, 각자 발제의 문서 및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내부 저장 공간에 아카이빙 했습니다. 각 학회원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지은 : 터키정부의 터키 내 쿠르드족 탄압 - 쿠르드어 정책을 중심으로 (SDG16)

조덕희 : 국내외 할랄시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박형준 : 아이젠하워와 닉슨 행정부의 중동 내 냉전 정책 비교

주현준 : 중동 여성 인권 보고서 -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SDG5)

하도명 : 중동 물류 산업 현황과 발전 전망

다섯 개의 주제가 모두 SDGs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서로의 발제를 공유하고 연구 과정에서 서로 자료를 추천하거나 뉴스를 찾는 등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의 정기 세미나 활동이 평화누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수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픈 세미나 진행입니다. 활동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중동에 관한 국내 주요 이슈가 없어 이번 학기 개별 연구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 발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6월 이후로 큰 이슈로 부상한 '예멘 출신 난민 이슈'가 난민에 대한 담론을 넘어서 이슬라마포비아, 혹은 프레이밍을 통한 편견·왜곡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시의성이 있는 주제라고 판단해, '예멘 출신 난민 이슈에 대한 학술적 접근'으로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발

제는 크게 다섯 주제로 구성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 혐오 이슈의 사회과학적 분석 : 혐오와 위험인식, 미디어 프레이밍
2. 예멘 내전의 역사 : 내전의 원인, 경과와 전망
3. 국내 난민제도·활동 진행 상황 : 청원 답변 분석, 제주범도민위원회, 자원봉사자 인터뷰
4. 해외 난민제도 분석 : 외국의 난민·이주민 제도 현황
5. 난민 제도의 현실 : 한국의 난민들,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종강 이후,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세미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구상, 주제 상호 피드백 등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만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단순한 문헌 연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 현재 사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담당자들에게 인터뷰를 청해 현 상황에 대한 의견과 단체 내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공익 법 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에 연락을 취해 세미나 자료에 대한 피드백과 검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엘 네피제 활동을 지원해주셨던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에게 홍보 및 장소 대관 관련한 추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미나는 기존 일정인 8월 말에서 다소 늦춰져 2학기 개강 이후인 9월 8일 토요일, 종각역 근처에서 오후 시간대에 3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NGO,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 결과, 약 25명의 외부 참가자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발제 내용을 보완하고 참여자들에게 서면으로 받은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답변하는 과정에 있으며, 발제한 내용은 아카이빙하여 다음 학기 학술지 또는 정책제안서의 형태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오픈 세미나 활동은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의 난민의 위치와 그들이 처한 상황, 앞으로의 방향을 학술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점차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18-1 학술지 발간입니다. 기존에는 네피제 소개, SDGs와 중동의 연관성, 학회원의 연구 자료 및 기타자료 등으로 학술지를 구성하고자 기획하였으나, 한 학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글쓰기 주제들이 생겨 이를 추가했습니다. 첫째로 한-카타르 문화교류 행사 활동보고입니다. 네피제는 지난 7월 14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카타르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뿐 아니라 카타르 사회문제, 여성인권 문제 등에 대한 현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 중에서 SDGs와 관련이 있는 몇몇 내용을 추려 추가조사를 진행해서 학술지에 수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상대주의의 존중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각 학회원 의견기고입니다. 6/29 - 6/30 평화누리 워크샵을 다녀오고 소감을 공유하면서, SDG5번 강연자께서 언급하신 ‘네팔의 생리기간 중 여성을 격리하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동의 젠더 이슈를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히잡, 차도르 등의 장치가 여성을 억압하는가’에까지 논의가 미치게 되었고, 만약 억압한다면 이를 외부인이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히잡은 때로는 종교적인 목적 혹은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서 담론을 형성하면 좋겠다는 학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학술지에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고하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을 마친 학술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DGs와 중동의 관계
2. 학회원 연구 자료 (소논문)
3. 한-카타르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활동보고
4. 중동 관련 뉴스웨어링 정리
5. "중동의 문화상대주의는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까?" 학회원 기고
6. 한국 전통 동화 ‘바리데기’ 아랍어 번역본
7. 중동 전문가 인터뷰 내용
8. 활동집 내는 소감

네피제는 이번학기 활동 및 유네스코 사업을 통해 2016년 겨울 이후로 두 번째 학술지를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했던 활동들을 하나의 책자로 묶어 내면서 학회의 활동과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중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동을 진행했던 네 명의 학회원 활동소감입니다.

조덕희 :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중동을 주제로 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정책, 매장자원 등을 조사하고 토론하여 나름대로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정기세미나, 오픈세미나, 카타르 교류 등을 행사를 통해 중동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몇몇 일부 국가

들은 이미 태양광이나 원자력으로 석유고갈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중동을 그저 석유 많은 나라, 테러리스트가 많은 곳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중동을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인권과 법제도, 기반시설 등을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동의 대다수 국가들은 기본적인 인프라, 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태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성인권, 각 국가의 인프라 등을 조사하여 이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도 찾아보았다. 강연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미 지구의 온도는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이제 인간은 그 피해를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한 국가이거나 아니거나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회에서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어떤 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한다.

박형준 : 우리 대학생들은 환경, 사회 문제가 심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엔 아직 미숙하기만 하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 지원은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첫 활동인 유네스코 평화누리 워크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대학생 친구들의 활동 보고를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보았다. 이후 우리 동아리에선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중동 문제를 조금 더 한국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다. 우리는 먼저 매 주 정기 세미나 활동을 통해 지식을 교류했다. 이로써 우리는 중동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다음 이를 학술지로 발간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세미나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중동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적극적으로 중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중동 문제에 오해와 편견을 거두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동이라는 세계 한 부분의 문제를 알리는 이 과정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국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주현준 : 엘 네피제 활동을 통해 평화누리사업에도 참여해 활동을 할 기회가

생겨 매우 행복했습니다. 핵심가치인 SDGs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는 강연들이 많았기에 워크숍 또한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연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며 생긴다면 다시 들을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엘 네피제를 통해 학술지를 발간하고 사회이슈를 주제로 오픈세미나도 참여해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 알찬 1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화누리뿐만 아니라 엘 네피제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하도명 : 유네스코 평화누리 워크샵에서 다른 팀들과 활동내역들을 공유하며, 평화누리 활동의 가치와 SDGs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강연을 들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매주 정기세미나에서 중동의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향상 및 공정한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의논하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개인적으로 연구한 주제를 소논문으로 작성해 학술집에 실을 수 있어 기쁘고, 학회원들과 함께한 활동들을 담은 학술집을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활동사진



▲ 평화누리 워크샵



▲ 첫 세미나



▲ 한-카타르 문화교류



▲ 마지막 세미나



▲ 오픈세미나1



▲ 오픈세미나2

한양대학교 ERICA KUSA



동아리(팀)명	한양대학교 ERICA KUSA			
프로젝트 명	환경사랑 쿠사			
소속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서현도	한양대 에리카	전자공학부	회장
2	김연앙	한양대 에리카	일본학과	부회장
3	김강현	한양대 에리카	전자공학부	홍보
4	나상욱	한양대 에리카	전자공학부	학술
5	김민균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	기장
6	김승민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	신입생
7	박지수	한양대 에리카	경제학과	신입생
8	윤승준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	신입생
9	안성혁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	신입생
10	심용택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	신입생
자문위원	신현아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집행까지 회의를 하고 기획하는 시간은 다소 길었지만, 꼼꼼한 검토와 본활동 전 미리 답사를 가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해두었기에 답사 당일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주제를 육상, 수상 생태계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선택한 것은 학교 주변이 육/수상 생태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구조되어있고, 본교가 위치한 안산에 생태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친환경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계 박물관, 조력발전소가 자리해있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본 팀은 산업

화와 기계화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환경도 보존하고 인간의 편리와 필요도 공존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토의하는 동아리 활동 중에 기획하게 되었다. 답사를 통해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그를 위한 문제를 답사 후 함께 토의해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짐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답사는 7/14일 진행되었다. 먼저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방문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다른 대안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보았고, 두 번째로 대부도 생태계 박물관을 견학하여 사전에 초청한 가이드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화호와 대부도의 환경과 생태계,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달전망대/문화관에 방문하여 대부도에 육상,수상 문화가 어떻게 자리잡아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운 날씨임에도 부원 모두가 육,수상 생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끊임없이 제안하였으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역문화음식탐방을 마지막으로 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탐방 후, 8/16에는 부원 모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파악한 생태계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구상해보았다. 다양한 과의 부원들이 참여했기에 각자 전공에 맞는 흥미로운 의견이 나왔는데, 일본학과는 일본생태 환경과 한국 생태 환경 보존의 차이점과 앞으로 유지하고 바꿔야 할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경제학과는 육,수상 생태계 보존과 인간편의를 위한 문명이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그래프와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여 토의를 이끌었다. 공학부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들과 기획에 대한 발표를 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크게 유도하였다. 이로써 평화누리활동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파괴와 해결책에 대한 총회도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었다.

평화누리 활동의 주제를 정하고 기획하기까지 여러번의 회의와 의견충돌로 인해 답사 전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원들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누리 활동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부원 모두 마지막 활동에서 다음에도 평화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등 참여자 모두 활동에 뿌듯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사진



▲ 대부도 생태박물관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달전망대에서 찍은 사진



▲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윗층에서 내려다본 모습



▲ 달전망대에서 취재를 당하는 부원의 모습



▲ 조력발전소에서 친환경에너지를 가동시키는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고있다



▲ 대부도 생태 박물관에서 육상생물 조형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Eye Angle



동아리(팀)명	Eye Angle			
프로젝트 명	스튜디오 119			
소속학교	전북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김지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대표
2	주제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부대표
3	임찬혁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4	최재성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5	김어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6	서민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7	이채연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8	김우정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9	서채영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10	유승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11	유혜림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12	정다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자문위원	이상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장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우리 Eye Angle은 스튜디오 119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4번 양질의 교육, 5번 성 평등, 10번 불평등 감소를 프로젝트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불평등 감소, 다문화 가정의 불평등 감소, 성 평등'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세부적인 목표로 삼고서 웹 드라마와 카드뉴스 만들어 자체 운영 sns에 게시하여 목표를 이루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스튜디오 119란 프로젝트 명 역시 이러한 저희의 목표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촉구하자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총 여섯 개의 카드뉴스와 네 편의 웹 드라마를 제작하여 자체 운영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에 방문하여 자문인터뷰 및 촬영하였고, '젠더문화축제' 현장에 가서 운영되고 있는 부스 등에 참여 및 촬영하여 해당영상 또한 자체 운영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카드뉴스>

여섯 개의 카드뉴스는 '장애인', '성 평등', '다문화 가정' 이 세 가지 주제를 순서대로 하여 각 목표 당 두개의 카드뉴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는 평창패럴림픽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우리도 지켜봐주세요' 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하여 다룬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성 평등' 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는 탈레반의 점령지에서 핍박받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 말랄라의 이야기를 다룬 'I am Malala'와 우리나라 남녀의 임금격차에 대한 현주소를 이야기한 'Gender Salary Gap'을 제작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는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난 모델 '한현민'에 대하여 다룬 '저도 한국인인걸요?'와 우크라이나 출신 어머니와 체코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인 아내를 두어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드레이 선생님에 대하여 다룬 '다문화 아이들에게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을 제작하였습니다.

총 여섯 편의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얻은 성과는 주위사람들의 인식개선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우리 역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 '우리도 지켜봐주세요'를 제작하며 패럴림픽의 편성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국민들의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편성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의 방송사들이 올림픽에 비하여 패럴림픽의 편성이 적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과 관련된 법률이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또한 성 평등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 'I am Malala'를 제작하며 탈레반 점령아래에 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생활의 실상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13살이라는 나이에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영국 BBC블로그에 탈레반 점령지의 실태를 알리고 그로 인하여 16살에 탈레반에게 총을 맞았지만 여전히 여성과 아동을 위해 운동하는 말랄라를 보며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 '다문화 아이들에게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 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으며 안드레이 선생님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는 것을 보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롭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문체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총 여섯 개의 카드뉴스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웹드라마〉

웹 드라마 ‘시선; 어디에나 있다’를 제작하며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웹 드라마 ‘시선; 어디에나 있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참지 못하고 면접 중간에 나가버린 평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평화의 동생 누리, 몽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에스코, 평화와 에스코의 친구로 드라마 속에서 점차 성차별,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윤. 총 네 명의 주요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화 : 왜 참아야하는데?’는 성 평등을 주제로 하여 취업 면접 중 면접관이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을 주요 소재로 하였습니다. ‘2화 : 들리지 않아도’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리와 누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의 갈등과 해소과정을 주요소재로 하였습니다. ‘3화 : 다르지 않아’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에스코와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고정 관념이 있는 주위 친구들과의 갈등과 해소과정을 주요소재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3.5화 : 누구에게나 있다’는 성차별,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웹 드라마를 제작하며 얻은 성과는 세 가지 목표와 관련하여 실생활 속에서 사소한 고정관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과 그를 인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이나 동남아 계열의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은 결혼 소개 업체를 통해 만났을 것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소한 고정관념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그것을 드라마에 담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공유하고 서로의 잘못된 관점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개선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웹 드라마를 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했다는 점입니다. 더운 여름날, 폭염주의보가 내린 상황에도 대부분 인원이 야외촬영에 참여하고, 시나리오팀과 편집팀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밤을 새며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지치고 힘들어도 그러한 내색 없이 참여해주었기에 성공적

으로 웹 드라마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에 참여하며 우리 ‘Eye Angle’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성차별,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잘못된 생각은 서로 고쳐주고, 몰랐던 점은 서로 공유하며 많은 발전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평화누리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주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의 인식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사진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방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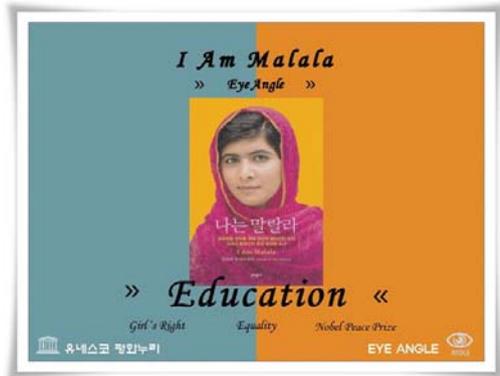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방문 인터뷰



▲ 젠더문화축제 현장 촬영 및 인터뷰



▲ 유치원 다문화 교육



▲ 카드뉴스
 <성평등; I Am Malala >



▲ 카드뉴스
 <다문화; 저도 한국인인걸요? >

IDEA



동아리(팀)명	IDEA			
프로젝트 명	SDGs 인터넷 강의 만들기			
소속학교	영남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박경원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장
2	이성훈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팀장
3	이재기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4	송정훈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5	이예빈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6	채지은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7	박문식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8	김은정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9	김지수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0	이가연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1	Lê Ngọc Trâm 이진주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2	최혜지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3	최혜주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4	이수현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5	정예은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6	하윤석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17	최현규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팀원
자문위원	이정주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1) 활동 목적 및 세부내용

IDEA팀은 영남대학교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소속 동아리 17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우리 팀은 국제사회 번영을 위해 약속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론적 실천적인 달성 방안을 모색하고 SDGs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인터넷강의를 제작함으로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인터넷 강의 5편과 강의 홍보를 위한 부스 활동으로 평화누리 활동을 마쳤다. 동아리 원들 모두 처음 시도해본 일들이었고 약 4개월간의 활동 기간 여러 학과행사와 시험들, 다른 대외활동들 또한 병행했기에 진행에 부담은 있었지만 다들 많이 성장하고 배울 감사한 기회였다고 한다.

4월에는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 최종 합격하여 팀원들과 계획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후 사전교육을 받고 팀을 회계, 동영상 편집, 홍보, 영상 촬영으로 나누었다. 계획된 일정이 중간고사와 학과 행사와 겹치면서 다소 미뤄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팀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 또한, 팀장과 부팀장이 중복된 역할이 있어 활동 진행이 비효율적이기도 했다.

5월에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 본 편 제작 전에 미리 예고편을 제작했다. 유튜브에 예고편을 올리고 다른 영상 기획을 하면서 4월에 문제가 되었던 역할 정립이 미흡한 부분이 점차 커져 기존 계획과 아주 다르게 진행하게 되었다. 각 팀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각기 다른 구성으로 기획하여 통일성이 맞지 않았고 SDGs를 일상적인 부분에서 달성하는 방법으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기획만 하다가 끝난 것도 있었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하지 않게 되어 팀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가장 먼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팀을 기획팀, 촬영팀, 지원팀으로 개편하여 활동을 다시 진행했다. 이번 팀에서는 확실히 역할을 정립하여 문제 없이 잘 진행했다.

6월에는 가장 먼저 영상 촬영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문제 > 목표 > 국내·외적 노력 > 시사점 및 과제)라는 틀로 기획하기로 하여 기존에 계획한 SDGs 6, 7, 11, 12, 13, 17 목표를 주제로 한 영상 대신에 SDGs 전반적인 소개, 1번 빈곤, 4번 교육, 13번 육상생태계를 주제로 다른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다. 영상 개수가 줄어 준비 기간이 늘어나 양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더 자주 하고 다양한 촬영 방법으로 시도하는 등 더욱 노력했다. 6월 말까지 SDGs 소개 편과 빈곤 편을 완성했고 남은 활동은 기말고사 이후 7월로 미루게 되었다. 방학 시작 후 워크숍을 가서 다른 팀들의 활동도 보고 SDGs와 관련된 특강을 듣기도 했다.

7월은 방학 기간이라 많이 모이지를 못했다. 많은 동아리 원들은 해외봉사나 해외전공 심화학습을 가고 대외 활동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회의를 하거나 촬영을 했다. 총 3번에 걸친 촬영과 회의로 이달에 남은 영상 촬영 2개를 다 끝내고 편집 후 업로드 하여서 총 영상 5개를 만들었고 8월에 있을 부스 활동 준비를 시작했다.

8월에는 부스 활동을 했다. 주제별로 각 영상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우드락에 붙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천막을 빌려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에게 교육, 빈곤, 육상생태계, SDGs를 소개하며 간식을 나눠줬다. 또한, 우리가 만든 영상을 시청한 뒤에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하지만 홍보가 덜 됐는지 퀴즈를 맞힌 사람이 없어서 이벤트는 못 하게 되었다.

2) 성과 및 어려웠던 점

준비 과정이 다소 어렵긴 했다. 활동 시작할 때는 팀원들 모두가 참여하기 위한 팀으로 나눠 각 팀이 SDG 주제를 맡아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첫 영상 만드는 것부터 한 팀은 진행이 잘 되는데 다른 팀은 좀 더디기도 하고 계획된 일정과 점차 달라지면서 팀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다시 개선하기 위해 두 번의 회의와 수정을 통해 팀을 개편했다. 그때부터 모든 팀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촬영팀, 지원팀, 기획팀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측면으로 팀을 나눠 다른 방법으로 영상 제작을 시도했다. 이번 팀은 정확히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각자 할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했고 때문에 일을 적게 맡은 사람은 신경을 덜 쓰기도 했다. 게다가 일정이 없으면 일이 없던 팀도 있었고 중간에 영상 주제가 바뀌어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가 못 쓰게 된 적도 있다. 하지만 개편된 팀은 강의를 기획하면서 동시에 촬영하고 영상에 쓸 피피티도 만들어 하나씩 완성해나갔다.

예산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상황이 계획과 맞지 않아 처음 계획했던 전문가 초청 특강과 일상생활에서 SDGs를 실현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려고 배정했던 예산을 홍보 부스와 촬영을 위해 변경하고 필요 없던 예산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회식과 촬영 소품을 사기 위해 사용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팀은 처음 계획했던 SDGs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제작했다. 영상은 3개의 주제와 SDGs 전반적인 소개 영상을 만들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주제들도 다뤄봄으로써 관련 전공자로서의 지식도 함양했고 이런 경험들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3) 개선 할 점

이번 활동에서 우리 팀은 계획도 변경했고 예산도 수정하여 8월 31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4개월간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계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사소한 일정들이 미뤄지면 점차 커져 전체 계획이 무너진다.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도 있지만 처음 계획을 잘 짜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우리 팀은 활동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계획을 변경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여러 회의를 거쳐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 활동을 마쳤지만 아쉬움이 있다.

예산안을 계획하는 데 있어 더 철저하게 검사 할 필요가 있었다. 예산안에 맞춰 활동을 진행하려 했지만 필요 없는 예산도 있었고 다른 활동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나와서 예산안을 몇 번 수정했다.

팀원의 역할 분배에 있어도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역할이 모호해서 혼란을 겪기도 했고 활동에 소홀하기도 했다. 우리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팀으로 나누어 각 팀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지만,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기도 했고 역할이 확실하지 않아 진행이 더뎠다. 팀원 간의 역할 분배가 중요했고 모호해서 일어난 일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되었다.

처음 계획할 때 모든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지 못하지만, 미리 정해진 일정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고 예산안 변경과 역할 분배가 모호해서 일 진행이 더뎠던 점들이 개선점이라 본다.

위의 성과 및 어려웠던 점들과 아쉬웠던 부분들을 고려해 다음번 활동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더 좋은 활동이 된다면 좋겠다.

4) 회의록

05.03 1팀 회의록 : 영상 촬영 계획 확정 및 역할 분배

05.04 1팀 회의록 : 계획 변경과 영상 구성

05.04 2팀 회의록 : 영상 구성 및 역할 분배

05.04 3팀 회의록 : 영상 구성 및 역할 분배

05.04 전체 회의록 : 영상 외적 역할 분배, 평화누리 전체 계획 설명 및 이견 조율, 팀별 회의

05.17 1팀 회의록 : 7번 주제 영상 ppt, 대본, 자료조사, 영상 더빙 시작

05.18 2팀 회의록 : 11번 12번 영상 구성

05.18 3팀 회의록 : 13번 17번 영상 구성

05.18 전체 회의록 : 중간 점검, 전체 계획 설명, 팀 내 역할 확정과 팀별 역할

조율, 팀별 회의

05.28 전체 회의록 : 팀 개편, 팀별 역할 및 계획 논의, 예산 집행 관련 논의,
팀별 회의

06.01 기획팀 회의록 : 영상 구성 확정 (문제 > 목표 > 한 것 > 할 것) ,
요청 사항

06.01 지원팀 회의록 : 카드뉴스 제작/전시회 준비 , 요청 사항 조율, 팀원
역할 논의

06.01 촬영팀 회의록 : 촬영 구상, 참고 영상과 자료 공유

06.01 전체 회의록 : 방학 일정 논의, 팀별 계획서 취합, 팀별 회의

06.08 회의록 : 1차 - 각 팀별 장 선출, 팀 간 예산 조율, 진행 상황 확인, 워
크샵 당일까지 결과물 만들기 2차 - 주제 변경 (빈곤 교육 육
상생태계 SDGs 소개), 주제별 내용구상 및 대본 만들기

06.09 회의록x : 주제별 내용 구상 점검, 대본 만들기 SDGs 소개편 먼저 작업
시작

* 전체 회의록은 별첨함

5) 개별 참가 소감

일부 소감

1. 아이디어 팀원들과 함께 일반인에게 SDGs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눌 때 팀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알게 되어 새로운 시각이 생겨 즐거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기회가 한층 더 성장한 '나'를 만나게 해 주었고,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2. 평화누리 활동을 하며 SDG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이 모두가 처음 도전하는 것이라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의논하고 영상을 구성하고 촬영하며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화누리 활동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배운 것도 많고 동아리 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의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3. 이번 활동이 SDGs의 심화 내용을 배울 수 있던 기회였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반 대중들에게 SDGs를 알리기 위한 내용을 영상에 담으려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워크숍 때 들은 강의가 여전히 인상 깊게 남아있다.
4. 처음 활동에 선발되어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계획이 매우 멋졌고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첫 회의조차 쉽지 않았고 이 활동뿐 아니라 다른 활동도 진행하고 있었기에 집중도 어려웠고 계획을 잘 짜서 진행하기에도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팀이 부스 활동도 하고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SDGs를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실은 이 뿐 아니라 장기프로젝트를 하며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 냈다는 게 더욱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SDGs를 공부하고 영상을 찍으며 배운 것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활동사진



▲ 05.18 회의(회식 사진)



▲ 06.08 회의(회식 사진)



▲ 06.09 회의(회식 사진)



▲ 06.28 워크숍 단체사진1



▲ 06.29 워크숍 단체사진2



▲ 07.09 촬영

KISS(Keep It Simple and Study)



동아리(팀)명	KISS			
프로젝트 명	SWP (Solve Water Problem)			
소속학교	연합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강소현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표
2	마경림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부대표
3	김지원	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회계 담당
4	김지은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전화문의 담당/ 홍보 담당
5	윤예지	울산과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소대여 담당/ 자료준비
자문위원	김승현 교수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저희 동아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고 양질의 물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일곱 가지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의 취지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고찰하여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찾는 것과 시민들에게 SDGs를 알리는 것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은 크게 설문조사와 피켓, 부스 등의 참여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수질상태 파악 활동입니다. 수질 상태를 몸소 느끼기 위해 운문댐, 남강댐 두 군데의 댐을 방문하였습니다. 운문댐의 하천은 캠핑지와 여과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관리가 철저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었고 구조물을 만든 곳 주변의 물은 고여 있었습니다. 반면 남강댐을 방문하였을 땐,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발견하기 힘들었고 녹조현상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남강댐의 주변도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성이 잘되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환경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태화강 봄꽃 대향연 행사 피켓활동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의 중요성과 세계적인 물의 심각성을 잘 인지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켓에 수질오염실태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O/X 퀴즈를 내 보았습니다. 피켓홍보와 설문조사는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으나, 다행히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시민 분들께 덕분에 좀 더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태화강 피켓활동으로 앞으로 우

리 활동을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EM흙 공 만들기 & 던지기 입니다. EM흙 공이란 EM활성 액 +황토+발효촉진제 등을 반죽해 약 일주일 간 발효시킨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EM흙 공은 하천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할 수 있어 수질개선 용도와 악취 제거로 사용됩니다. EM흙 공 만들기 활동은 대구환경연합단체에게 협조를 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만들기 활동 전 사전 만들기를 통해 만들기 법을 숙지한 뒤 5월 26일, 대구광역시 팔공산 미곡동에서 ‘환경꾸러기 탐사대’의 아이들과 함께 직접 EM흙 공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일 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EM흙 공 만드는 것을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이 모습에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저희의 통솔에 잘 따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던지기 활동은 약 한달 뒤에 진행하였습니다. 환경꾸러기 탐사대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환경공학과 대학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대구 신천에 가서 EM흙 공 70여개를 던졌습니다. EM흙 공을 던지는 것은 던지면서 곰팡이가 날려 던지기가 꺼려졌지만,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로 간 날, 같은 장소에서 대구 YMCA단체도 EM흙 공 던지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강의 정화를 위해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실천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홈페이지와 SNS 제작 및 활성화 입니다. 동아리 홍보 및 활동 정보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KISS 동아리 페이지에는 SDGs의 설명과 활동 주제를 소개하는 피드를 첫 게시물로 시작하여 저희가 진행한 활동을 설명하고 활동후기를 적는 활동일지를 꾸준히 게시하였습니다. 또, 수질오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물에 관한 이슈,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관련 영상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이벤트 공유 등 물과 관련된 정보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SNS활동 통해, 처음 페이지를 게시하고 운영하는 것이라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고, SNS활동에 흥미도 생겼습니다. SNS가 저의 동아리 홍보와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리플릿 만들기 입니다. 6월에 걸쳐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물 정화 기술들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

째 페이지는 '물이 부족해진 직접적인 원인', '물 낭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물을 절약해야하는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물 일원화의 소개', '개도국에 전파할 만한 기술' 등을 기재해 제도와 기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해외에 전파하거나 교육단체에 배포하고 싶었지만 어려움이 있어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활동계획 중 실패한 부분이기도 하며, 제일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활용하진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활용을 하고자 하여 이후 8월 울산 대공원 부스활동에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은 7월 7일 울산 고래축제에서의 피켓활동입니다. 동아리 소개 및 활동목적과 수질 심각성 인지, 지속가능한 물 사용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물 문제 관심까지 촉구하기 위해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크게 “SDGs 소개, 세계 환경 위기시계, 물 전쟁 및 사건사고, 깨끗한 물을 위한 실천방안” 이 4가지 주제를 선정했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피켓 활동 당일 축제를 즐기러 오신 시민 분들께서 과연 저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실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많은 분들께서 다가와 피켓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게 설명을 들어주셨으며, 피켓내용에 없는 물에 관한 부가적인 질문을 하신 시민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축제인지라 그곳에도 많은 부스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국립환경검역소 부스에서 저희의 활동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활동은 8월 15일, 8월 30일 2회에 걸친 울산 대공원 부스활동입니다. 8월 15일, 8월 30일 각각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부스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15일은 공휴일이라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물 절약하기 운동으로 부채 그리기와 오호 만들기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고래축제 때 만든 피켓과 저희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물에 대한 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boxed water’에 대해 소개하고 boxed water를 나눠주며 나무 2그루를 심을 수 있는 해시태그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부채그리기 활동은 부채앞면엔 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부채뒷면엔 ‘물 절약하기!’를 쓰게 하며 물을 아껴 써야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시각으로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오호 만들기 활동은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대체하여 오호를 사용함으로써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과학 실험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하여서 모두가 즐거웠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호였지만 학부모님들 중 대다수가 처음 접하는 것으로 신기해하시며 같이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였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시민들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8월30일 활동은 아이들이 개학한 시점이고 평일이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스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부스활동과는 다르게 설문조사와 피켓설명 위주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받고 SDGs와 물과 관련된 제도 등을 설명한 뒤 직접 제작한 물 절약 관련 스티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전 부스활동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금 당황했지만 다양한 연령대를 접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그 후 시민들의 물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크게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으로 나눠 연령대별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질상태에 대한 인식과 물의 신뢰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물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연령대 대부분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식수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의 답이 정수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수질은 깨끗하다고 생각은 하나, 수질 신뢰도는 낮다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수질의 홍보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질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물 관련 제도의 인식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부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을 시행하며 수질오염 방지와 예방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즉, 30대 이상, 20대, 10대 순서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국내수질보전법에 취약한 10대들을 중점으로 환경보전법에 대해 소개하고 수질보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한다면 이 결과를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적인 물 관련 기술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입니다. 빗물을 식수로 정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선 60% 이상이 알고 있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물 정화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국제적인 제도를 얼마나 아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 했을 때, 그 결과는 전 연령대의 90%이상이 물 발자국이란 개념을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물 정화 기

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국제적인 환경제도는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아도, 세계시민사회에 살고 있는 일원으로서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물 사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물 발자국과 같은 국제적인 제도에 대한 관심도 촉구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물에 대한 위기의식과 실제 물 사용량의 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65%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에 대한 위기의식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물에 대한 위기의식은 높지만 실제로 본인의 하루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물을 헤프게 쓰는지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위기의식이 연령대별로 다 높은 만큼 평소 하루 물 사용 양에 대한 고취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스티커 등을 활용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직접 하루 물사용량을 와 닿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가 실천해나가고 앞으로의 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후 우선 우리나라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물 관련 제도 및 법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며, 물 사용에 대한 인지정도를 높이는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소감입니다. 팀원 5명이 가진 생각과 특성이 전부 달랐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속가능한 물에 대한 해답을 찾자'는 목표에 대한 열정이 5가지 색깔로 나타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열의를 가지고 유네스코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을 통해 SDGs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직접 활동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경험은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물을 위해 시민들에게 나누는 활동을 하였지만 오히려 저희가 느끼고 배운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원 하에 활동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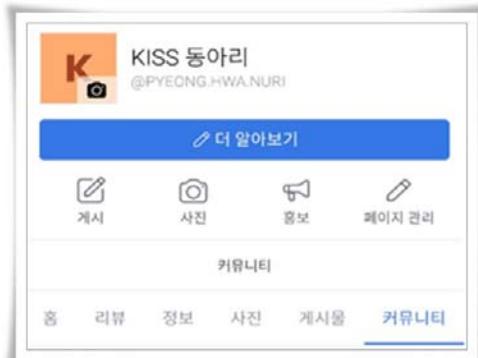
활동사진



▲ 사진설명 : 남강댐 방문



▲ 사진설명 : 운문댐 방문



▲ 사진설명 : SNS 홍보용 동아리 페이지



▲ 사진설명 : 태화강 축제



▲ 사진설명 : 흙공 사전 제작



▲ 사진설명 : 환경꾸러기 탐사대(봉사) 흙공 던지기 참가



▲ 사진설명 :7월 7일 울산 고래축제 피켓활동



▲ 사진설명 :8월 15일 울산대공원 부수활동



▲ 사진설명 :8월 30일 울산대공원 부수활동



▲ 사진설명 : 성남청소년문화의집에 부채 및 오호재료 기증.

SNU Economic Review



동아리(팀)명	SNU Economic Review			
프로젝트 명	이코노믹 리뷰 13호 매거진 with 유네스코 평화누리			
소속학교	서울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권영호	서울대학교	경영학	대표
2	김도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	부대표
3	김동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팀원
4	김성민	서울대학교	경제학	팀원
5	김연수	서울대학교	경제학	팀원
6	김영선	서울대학교	경제학	팀원
7	김재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팀원
8	문세경	서울대학교	경영학	팀원
9	박재양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팀원

10	박정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팀원
11	박종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	팀원
12	박준성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	팀원
13	박지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팀원
14	양예빈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	팀원
15	우선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	팀원
16	이승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	팀원
17	이재훈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팀원
18	이홍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	팀원
19	정수아	서울대학교	경제학	팀원
20	조성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팀원
21	최수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	팀원
자문위원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1. 활동 목적

SNU Economic Review는 경제 시사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인 경제학을 경제 이슈에 대한 학습으로 보충하며 현실 경제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을 함께 하며 그동안 넓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던 경제 시사 학습의 방향을 바꾸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학의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 과연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 활동에 참여하며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의 한 분과인 경제학이 이러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경제 전반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동아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 경제적 정의 실현과 관련된 특정한 주제를 정해 그에 대해 깊이 검토하는 한편 빈곤 종식, 불평등 완화, 기후 변화 극복 등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경제학과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민을 우리 동아리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평화누리 활동의 취지인 만큼, 경제 매거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적극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즉, 저희가 발행하는 매거진을 서울대학교 곳곳에 고루 비치하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동시에 각 학생이 몇 달에 걸쳐 한 개의 기사를 쓰고 동아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첨삭함으로써 얻는 높은 질의 다양한 기사를 실을 수 있는 전문성 또한 높으므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경제학의 역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2. 세부 내용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아리에서 경제 시사 학습을 위해 취해오던 방식을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에 맞게 적용해 실행했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활동은 지금까지 브리핑, 세미나, 매거진 발행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브리핑 활동은 학기 중 매일 아침 8시 반에 동아리원들이 모여 15~20여분간 각자 읽은 경제 기사 혹은 이슈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각자 찾아온 내용을 마인드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정리하며 4~5명이 한 조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제를 정해 깊이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는 5월 중순에 진행되었으며, 평화누리 활동의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가장 연관이 깊어 보이는 경제 이슈인 노동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저녁이 있는 삶’을 표방하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과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결국 경제적 정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5월 중순의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최근의 이슈였기 때문에 SDG 8번 ‘양질의 직업과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 근로자와 시장에 미

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외국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정책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효율적이며 동시에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외환시장 정보 공개와 신흥국 경제 위기, 남북 경제 협력 등 굵직한 이슈를 위주로 이번 학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거진 집필을 위한 인원 보충을 위해 7명을 추가로 모집했고, 총 21명이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 참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과 세미나를 통해 다진 경제 시사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한 경제 매거진 발간에 착수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일주일에 두 번 매거진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8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첨삭과 수정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제 상황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가장 맞닿아 있다고 사료되는 노동 정책, 환경 분야에서 주제를 찾아 관련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에는 총 21개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중 COVER STORY에서 SDG 5번 ‘성평등’, SDG 8번 ‘양질의 직업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노동 정책에 대한 5개의 기사, ISSUE FOCUS에서 SDG 12번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3번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과 관련된 4개의 기사(‘스마트그리드의 현주소’, ‘기후금융, 기후변화 대응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성장통’, ‘환경경제학자 홍중호 교수님을 만나다’) 등 총 9개의 기사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다룹니다.

3. 성과

8월 말에 최종적인 원고가 완성되어 총 500부를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비치했고 현재 대부분의 매거진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지역사회에 전달하지 못했던 점, 500부밖에 인쇄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4. 어려웠던 점

매번 매거진을 발행할 때마다 예산과 비용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족한 인쇄비와 디자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단

과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됐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5. 참가 소감

유네스코 활동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경제 이론 학습이 아닌 사회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반성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사회의 기준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지침을 얻을 수 있어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활동사진



▲ 세미나: 외환시장 개입의 근거 및 전망



▲ 세미나: 남북 경제 협력



▲ 세미나: 신흥국 경제 위기



▲ 세미나: 근로시간 단축



▲ 매거진 회의



▲ 13호 매거진

UNAI ASPIRE 고려대학교

UNAI ASPIRE



동아리(팀)명	UNAI ASPIRE 고려대학교			
프로젝트 명	공다방 (공정무역 X 환경 캠페인)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전하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대표
2	김준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대표
3	이하빈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팀원
4	이시현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팀원
5	한정민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팀원
6	조은혜	고려대학교	심리학	팀원
7	경태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	팀원
8	박희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팀원
9	송수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팀원
10	김수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	팀원
11	설혜수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	팀원
12	이예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팀원

13	신도연	고려대학교	국제학과	팀원
14	정승하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팀원
15	김수현	고려대학교	국제학과	팀원
16	김진아	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팀원
17	김예림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팀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처음에 저희는 그간 지원해오고 있던 라오스 틴농마을에 화장실을 건축하기 위해서 펀딩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단순히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에도 영향력을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무역X환경캠페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목적 및 내용

프로젝트는 ‘환경’(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빈곤’(공정 무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환경입니다. 2015년 기준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57억 개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 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일조하고
- ② 일회용 컵을 분별없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며
- ③ 실제로 사람들이 컵을 삼으로서 앞으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빈곤 심화 실태 개선입니다. 스타벅스에 앉아있으면 쉽게 "The Coffee Belt"라고 써져있는 세계지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적도 위아래로 25도 정도에서 커피가 생산되며, 이것이 저개발국가의 분포의 위치와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잔의 0.5%만이 실제로 커피콩 재배 농민의 이윤입니다. 이렇게 기호식품은 많은 부분 저임금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이뤄지는 반면, 그 식품을 즐기는 수입국의 소비자들은 그러한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알게 되는 경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① 글로벌 경제시스템 하 불공정한 노동력 착취와 무역 구조를 알리고
- ② 실제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공정 무역 제품 전반에 대해 친숙화를 도모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공정 카페를 구상하였습니다.

공정무역X환경 캠페인(이하 공정 카페 프로젝트) 내용

공정 카페 프로젝트의 중심 구상은 공정무역 커피를 일회용 커피가 아닌 텀블러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10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아이스 라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개인 텀블러가 없을시, 저희가 자체 제작한 텀블러를 2500원에 사야하고 그 경우 커피를 500원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정무역 더치커피, 물, 우유 그리고 얼음을 공수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노트와 SDGs관련 자체제작 노트북 스티커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외에 부스 한켠에서는 관련 퀴즈 및 상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카페의 컨셉과 맞는 공정무역과 해양 오염 관련 퀴즈 및 게임을 진행(농구게임, 퀴즈, 뽑기 게임)하였고, 그에 대한 상품으로는 공정무역 쿠키나, 기프트콘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4단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는 ‘①기획 단계, ②홍보 단계, ③캠페인 실행 단계, ④기부 단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기획 단계

기획단계에서 저희는 사업의 전반적인 구상과 물품 제작, 조달 및 인력 배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공정무역 제품을 두고, 가격이나, 인증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커피를 마셔보면서 맛을 평가

하여, 최적의 공정무역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홍보 물품 및 제품들을 디자인하면서 더 눈에 띄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기획할때는 단순히 도덕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과 상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활동이 4시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동아리 원 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사를 작성하여 외우는 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②홍보 단계

두 번째는 홍보단계입니다. 저희는 당일 행사 진행이 5시간 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총 3회의 SNS 홍보와 오프라인 포스터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행사 홍보 콘텐츠 자체를 통해서도 많은 인터넷 유저들에게 빈곤과 환경문제에 대한 충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공정무역과 플라스틱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좋아요 및 친구 태그 댓글 시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수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카드뉴스가 합하여 약 600명에게 도달하였고 직접적인 행사 홍보물은 약 2000명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댓글에는 ‘텀블러 들고 더치커피 먹으러 가자’와 같은 내용이 달렸고, 실제 부스 운영때는 학우들이 포스터를 보고, 빈 텀블러를 들고 찾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③-1캠페인 실행 단계

당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행사 준비 시간으로서 장비를 설치하였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행사 장비를 정리하고 동아리원들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에는 총 3개의 부분으로 부스를 구성하였습니다. 한 측에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 부스를, 다른 한측에는 이벤트 진행 부스를 진행하였고, 부스 외부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요원을 두었습니다. 제품 판매 부스에는 커피 판매자와 제조자의 역할을 분리하여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 대비하였습니다. 주로 홍보물을 보고 온 사람들은 카페를 이용하였고, 지나가다가 들르는 사람들은 이벤트만 참여하거나 이벤트를 참여하다가 공정무역 제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공정카페 행사를 비롯하여, 이외 UNAI ASPIRE 타 대학 지부에게도 SDG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6월사이, 성북구 지역아동 센터에서 9회의 수업(1달에 1번, 3 학급, 3달)을 운영하였습니다. 교내에 1회 'SDGs와 인권' 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신 서창록 교수님을 모시고 교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여름 방학에는 '난민' 문제를 주제로 8시간 동안 신장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③-2 성과

앞서 말한 공정카페 행사와저희의 공정카페 이벤트를 통해서 약 50만원의 기부금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총 100명 이상의 방문한 학우들이 방문하여 이들에게 공정무역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로 모은 자금과 교육 봉사 활동비를 합쳐서 저희는 약 150만원을 모금하여 라오스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④기부 단계

네 번째, 기부단계입니다. 저희는 모금한 150만원을 통해 라오스 틴농 마을의 틴농 초등학교(Thinnyoung Elementary School)에 직접 정화조 2칸과 화장실 2칸을 신축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댐 붕괴 사고로 수재를 당한 이재민에게 쌀 40포대와 물3,360병을 전달하였습니다(사남사이 이재민 캠프) 전달 및 신축은 UNAI ASPIRE 고려대학교의 의장 학우를 통해서 직접 수행되었고, 이에 더욱 직접적이고 많은 양의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감 및 느낀점

이 행사를 통해서 느낀점은 첫째, 한국 내 세계시민의식의 부족입니다. 부스 외부에서 캠페인을 홍보하며 다닐 때, 지나가는 학우들에게 공정무역 커피나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벤트에 참가하라고 하거나 저렴하게 커피를 드실 수 있다고 해

도, ‘공정무역’이나 ‘환경오염’등의 단어에 불편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 내에 전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불편한 진실’으로서, 덮어두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규교육이나, 법 체계, 정치적 어젠다, 혹은 기업 경영 논리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수용이 더욱 깊게 이루어져, 상생이 사회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주류화 될 필요가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 사회 내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세계시민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공감에 의존하는 모금이라 아니라, 우리도 기부자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였기에, 성공적인 모금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과정에 있어서 ‘좋아요’를 누르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였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캠페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자극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향력의 행사와 자력화입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캠페인과 행사가 2000명 이상의 학우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 결과 얻어낸 자금이 라오스 틴농초등학교의 화장실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은 학교로 배우러 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라오스 틴농의 교육의 기회가 넓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영향력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오스에 우리만이 영향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라오스로 인해서 자력화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값진 여섯달의 경험이었습니다.

활동사진



▲ 대동제 기간에 진행한 공다방 포스터



▲ 공다방 활동 사진



▲ 5.15 환경 세미나 기념 사진



▲ 공다방 활동과 연계한 카드 뉴스 활동

YesAllGirls



동아리(팀)명	YesAllGirls			
프로젝트 명	Education Gets Girls Started			
소속학교	서울대학교			
팀원	이름	소속(학교)	전공	팀 내 역할
1	최서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표
2	한혜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대표
3	김혜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팀원
4	오현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팀원
5	이동혁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팀원
6	이윤경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팀원
7	정영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팀원

8	한송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팀원
9	현예린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팀원
자문위원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자문위원

활동 분야



주요 활동결과

본 동아리 Yes All Girls는 9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3월부터 8월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과 여아의 교육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을 ‘Education Gets Girls Started(EGGS)’라고 짓고,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온/오프라인의 각종 방법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여아 교육의 실태를 알리고, 양질의 교육과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을 처음 신청한 것은 전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던 친구들이 이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 심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빈곤, 조혼, 여성폭력,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이유로 여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여아교육의 현실은 가까운 주변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이 모여 지구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절대빈곤과 교육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교육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여아를 위한 단순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넘어선 양질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행하는 활동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여아교육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을 알림으로써 지구촌의 발전된 내일을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 방향을 구상하고, 세부 계획 추진 내용을 확인했으며,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의 목표 및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인초등학교, 서원중학교에서 여아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워포인트와 흥미를 유발하는 각종 활동들을 바탕으로 ‘여아교육’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컨대, 개발도상국 여아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학교 가는 길 그리기 활동 및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알리고, 여아교육을 돕고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여아들을 응원하는 편지를 적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여아교육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아교육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고, 미래의 시민인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 줄 수 있었으며, 여아들의 삶에 대한 공감에서 더 나아가 후원을 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SNS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Yes All Girls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개발도상국 여아들의 실태를 다룬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기념일에 맞추어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팔로워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퀴즈를 진행하고 사진,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여아 교육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또 여의도 공원에서 여아교육의 실태와 본 동아리의 SNS 활동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여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SDG 4와 SDG 5를 홍보하였고, 개발도상국의 여아교육의 실태와 그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학생 및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 여아의 실태와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개

발도상국의 여아 교육, 더 나아가 여아들의 삶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선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활동을 돌아보며 몇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예산의 사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활동들을 모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신청한 100만원의 절반가량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규모를 작게 진행하기도 하였고, 교육활동이나 온라인 활동의 경우 예상보다 적은 지원금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점과 주어진 지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을 하며 단발적인 홍보 및 캠페인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개발도상국 여아의 실태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도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힘들고, 그것이 실제 개발도상국 여아들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더욱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이 맞지 않는 이유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평화누리 활동 관련하여 개최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동아리의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비록 몇 가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YesAllGirls의 이름으로 활동한 9명의 학생들 모두가 개발도상국의 여아 교육과 지속가능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해를 보다 다양한 학생 및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세계의 소외된 사람들, 특히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개발도상국 여아들의 삶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울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사는 지구촌의 내일을 꿈꾸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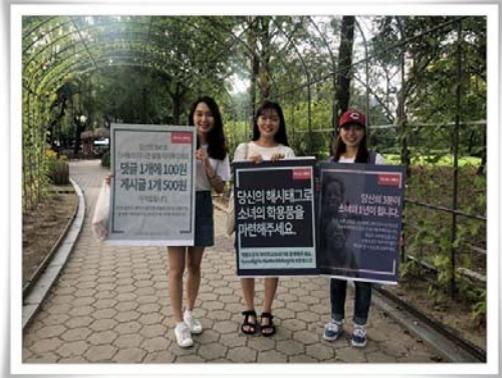
활동사진



▲ 세계시민교육 모습



▲ 서울대학교 학내 홍보부스 운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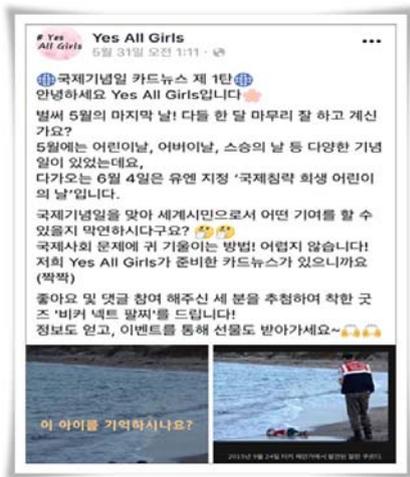
▲ 여의도 공원 홍보활동 모습



▲ 6월 워크숍 참가 모습



▲ 동인초등학교 학생들이 적은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예시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펴낸때 | 2018년 12월 10일

펴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 김광호

역은이 | 김은영 김명신

주 소 | (04536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 화 | (02) 6958 4164

팩 스 | (02) 6958 4250

홈페이지 | www.unesco.or.kr

디자인 | 신세계기획

사 진 |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 참가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SC-2018-RP-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04536)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TEL. 02) 6958-4100